

제11장 청라면(靑蘿面)

본래 보령군 지역으로 청라면은 임천(林泉), 분향(芬香), 창대(蒼垓), 증성(甌城), 만천(晩川), 평정(坪亭), 세곡(細谷), 상동(上東), 호동(狐洞), 의평(蟻坪), 원우(院隅), 은선(隱仙), 정산(丁山), 소리(昭里), 둔대(屯垓), 입치(廿峙), 백현(白峴), 상장(上長), 하장(下長), 서원(書院), 장내(牆內), 서산(西山), 복병(伏兵), 질곡(埵谷)의 32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郡面 폐합에 따라 오삼전면(五三田面)의 시궁(柴弓), 옥계(玉溪), 정동(貞洞), 서촌(西村), 길현(吉峴), 하룡(下龍), 황곡(黃谷), 사가(四佳), 상룡(上龍), 석우(石隅), 광암(廣岩), 송당(松堂), 중리(中里), 하장전(下長田), 삼거(三巨), 상장전(上長田), 명대(鳴垓), 위현(渭峴), 하건천(下乾川), 상건천(上乾川), 박산(朴山), 신평(新坪), 음현(奄峴), 신대(新垓)의 24개 동리를 합병하여 향천(香泉), 의평(蟻坪), 나원(蘿院), 소양(昭陽), 내현(內峴), 장산(長山), 옥계(玉溪), 황룡(黃龍), 장현(長峴), 신산(新山), 음현(奄峴)의 11개 리로 개편하였다.

- 오삼전면(五三田面) : 옛 보령현의 동남부 지역에 있던 면. 현재 청라면 장현리, 황룡리, 옥계리, 신산리, 음현리 지역이다.
- 청라면(靑蘿面) : 옛 보령현의 동남부 지역에 있던 면. 현재 청라면 의평리, 장산리, 라원리, 내현리, 향천리, 소양리 지역이다.

1. 내현리(內峴里)

본래 보령군 청라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곡리(內谷里) 당내리(堂內里) 원좌동(元佐洞) 백현리(白峴里)와 주평리(酒坪里) 의평리(蟻坪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내곡(內谷)과 백현(白峴)의 이름을 따서 내현리(內峴里)라 하였다.

- 감나무골 : 마쟁이골 입구의 서쪽 골짜기.
- 감나무골 : 원자울의 남쪽 골짜기.

- 잣모봉 : 감나무골 북쪽에 있는 봉우리.
- 계피나무골 : 불탄골 밑에 있는 골짜기
- 고랑탕이 : 안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 골패나무골 : 안골의 동남쪽 골짜기.
- 곱독밭안고랑 : 불탄골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서 곱돌(활석)이 많이 나온 듯하다.
- 공밭 : 진밭고랑 위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 옛날 나무꾼들이 공치기를 했던 곳이다.
- 공판 : 안골 북쪽 음현리와의 경계 지역이다. 홍두깨날의 서쪽으로, 매우 평평하여 옛날부터 나무꾼들이 작대기로 공을 치고 놀았다는 곳이다.
- 공판 : 윗장굴고개 정상 부분으로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공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권바위 : 영매산 끝에 있는 바위로, 벼랑으로 된 큰 바위 위에 다른 큰 바위가 얹혀 있는데 가운데에 끼인 작은 뾰족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고 있다. 뾰족이 받치고 있는 바위라는 뜻으로 권바위라고 부른다. 옛날 여자 장수가 성주산에서 치마폭에 큰 돌을 가져다 뾰족로 받쳐 놓고, 어려워서 “휘우” 하고 쉬었기 때문에 권바위와 휘유개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다.
- 권바위들 : 권바위 앞쪽에 있는 들.
- 내곡(內谷) : 안골의 한자식 표기.
- 느르실고개 : 자막굴에서 느르실로 넘어가는 고개.
- 당내(堂內) : 당안의 한자 표기. 1960년대부터 부른 내현리 2구 중 1구.
- 당안 : 내현리의 중심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서는 60여 년 전까지 산제를 지냈다. 산제 지내던 당집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듯하다.
- 대드랭이들 : 뒤웅굴과 황새절굴 앞에 있는 들.
- 대터굴 ; 도장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비교적 넓은 평지가 있어 많은 가옥이 들어서 있다. 터가 넓다는 의미로 붙여진 듯하다.
- 도깨비뚝병 : 솟바래 앞에 있던 뚝병.
- 도장굴 : 자막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도장굴고개 : 도장굴과 대터굴 사이의 고개.
- 두내받이 : 내현리에서 내려오는 내와 청라 상중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하여지는 곳이다.
- 둥구재보 : 말뚝병 밑에 있는 보.

- 뒤말림 : 휘유개의 동북쪽 골짜기.
- 뒤옹굴 : 당안저수지 남쪽 마을이다.
- 마장고개 : 내현리에서 옥계리 마쟁이로 넘어가는 고개. 근래에 시멘트로 포장되었고 현재는 확장 공사 중에 있다.
- 마쟁이골 : 아랫마쟁이골 윗마쟁이골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만취동 : 말둑병 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에 절이 있다.
- 말둑병 : 흙박보 밑 물이 깊은 곳으로, 말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 말무덤 : 휘유개 마을 가운데에 있는 돌무더기로, 옛날 김성우 장군이 말을 목베어 죽여 이곳에 묻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근래에 세운 비가 있다.
- 말미구레 : 말미산 앞에 있는 들.
- 말미산 : 대터굴과 도장굴 사이에 있는 산.
- 모과나무골 : 아랫마쟁이에서 갓모봉 쪽으로 난 골짜기.
- 방아보 : 동구재보와 백현보 사이에 있는 보이다. 물레방아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백현(白峴) : 내현리의 서쪽 마을로 새터, 만취동, 휘유개를 통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1960년대부터 부르던 내현리 2구 중 1구. 휘유개의 한자식 표기.
- 백현리(白峴里, 휘우고기) : 내현리 휘유개 <1911, 朝鮮地誌資料>
- 백현보(白峴泐) : 내현리 백현보 <1911, 朝鮮地誌資料>
- 보골보 : 당안 저수지 제방 자리에 있던 보. 저수지 축조로 없어졌다.
- 불탄골 : 소도둑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음현리 산수골과 통한다.
- 사장굴 : 원자울의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 산제당 : 산제당말랭이의 해발 130여m에 위치하였다.
- 산제당말랭이 : 당안마을 뒷산의 봉우리이다.
- 산제봉 : 만취동과 뒤말림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과거 산제를 지냈었다고 한다. 요즈음도 절에서는 산제를 지낸다.
- 삼생이 : 내현리 앞들에 있는 작은 섬처럼 생긴 지형을 말한다. 세 개가 있어 삼생이 별과 같다고 하여 삼생이라 하였다. 소나무가 자라고 묘가 있기도 하다.
- 삼생이들 : 내현리와 라원리 사이에 있는 들. 삼생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상봉 : 원자울 서쪽에 있는 장산리와 경계가 되는 봉우리.
- 상봉안고랑 : 원자울의 서북쪽 골짜기.
- 새미골 : 장굴고개 남쪽의 골짜기.

452 • 청라면

- 새터 : 청라중학교 앞, 청보초등학교 동쪽 마을이다. 근래에 새로 들어선 마을이라는 뜻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1910년대 초) 그린 지형도에는 이곳에 가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새터보 : 청라중학교와 라원리 사이의 의평교 북쪽 100여 m 지점에 있는 보로 새터 앞들에 물을 대었다.
- 서낭댕이 : 청라중학교 앞, 도로 북쪽의 비석 있는 곳에 있었다. 신목으로는 탕자나무가 있었으나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없어졌다.
- 소도둑골 : 윗마쟁이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 솟바래 : 삼생이 들에 솟아 있는 작은 언덕으로 삼생이의 하나. 큰 묘지와 같이 생겼으며 동쪽에는 농막이 있다.
- 솟바리 : 사장굴 남쪽에 있는 산. 비교적 험한 산으로 주변에는 인가가 없다.
- 쇠도둑골 : 원자울의 서남쪽 골짜기. 골짜기가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수리바위 : 안골 남쪽 산봉우리에(183.8m) 있는 큰 바위. 바위 아래에 수리암이 있다.
- 아랫마쟁이골 : 마장고개가 있는 골짜기.
- 안골 : 내현리의 서쪽 마을로 청라면 소양리와 접한다.
- 여넷갈 : 의평리 쪽에서 흘러내려 권바위 밑에서 합하여지는 내.
- 여수고랑 : 안골의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고랑.
- 열닷마지기보 : 백현교 아래쪽에 있는 보로 열닷마지기에 물을 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영매들 : 영매산 앞에 있는 들.
- 영매산 : 휘유개와 의평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권바위 뒤쪽 산이다.
- 원자울 : 대터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 원장굴 : 대터굴 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 원좌동(元佐洞) : 원자울의 한자식 이름.
- 윗마쟁이골 : 마쟁이골의 동북쪽 골짜기.
- 윗장굴고개 : 휘유개에서 윗장굴로 넘어가는 고개.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 자막굴 : 당안 서쪽에 있는 마을.
- 작은골 : 자막굴 안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작은작골 : 만취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장굴고개 : 대터굴에서 장산리 장굴로 넘어가는 고개.
- 장굴고개 : 원자울에서 장굴로 넘어가는 고개.

- 장굴고개 : 휘유고개를 내현 쪽에서 부르는 이름.
- 진등 : 안골 안으로 뺀어 나온 낮고 긴 산줄기.
- 진등날 : 도장굴과 느르실 사이에 있는 긴 능선.
- 진밭고랑 : 도장굴 안쪽에 있는 골짜기.
- 체분고랑 : 안골의 동쪽에 있는 고랑으로, 옛날 초분하던 고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노인들도 말만 들었지 실제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 체조판 : 휘유개 북쪽의 산 꼭대기로 옛날 아이들이 놀고 운동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초쟁이 : 새터 북쪽 두내반이 서쪽에 있는 마을. 서너 가구가 거주한다.
- 초쟁이들 : 초쟁이 서쪽에 있는 들.
- 초쟁이보 : 초쟁이 동쪽 두내반이 서쪽에 있는 보.
- 큰골 : 자막굴의 안쪽 고랑.
- 한섬지기보 : 둥구재보의 다른 이름. 이 보에서 물을 대던 논이 한섬지기(20마지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함박굴 : 휘유개 서쪽 골짜기.
- 흥굴 : 계피나무굴과 삼박굴 사이의 골짜기.
- 흥두깨날 : 안골과 음현리 선유굴 사이의 능선으로 흥두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흥박보 : 초쟁이보 남쪽에 있던 보.
- 황새절굴 : 뒤웅굴 남쪽의 동쪽으로 난 골짜기.
- 휘개 : 휘유개의 다른 이름.
- 휘개들 : 휘개 앞 들.
- 휘유고개 : 휘유개에서 아랫장굴로 넘어가는 고개.



관바위(1992)



오성 청소년수련원(2008)

2. 라원리(蘿院里)

본래 보령군의 청라면 지역으로서 청라원(靑蘿院)이 있었으므로 청라원(靑蘿院) 또는 청라동(靑蘿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기관 폐합에 따라 원우리(院隅里), 은선동(隱仙洞), 상중리(上中里), 지천리(芝川里), 월티리(月峙里)와 주평리(酒坪里), 정산리(丁山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라원리(蘿院里)라 하였다.

- 가마굴 : 새내 범의굴 남쪽 골짜기.
- 가운데쌈바굴 : 상중 쌈바굴의 가운데 골짜기.
- 갓석대 : 석대절골 서쪽 골짜기.
- 개마당 : 상중 새터 남쪽에 있는 산자락. 평평하여 밤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
- 갱이보 : 상중의 새터와 윗잉낭 사이에 있는 보.
- 고지 : 상중 멩덕골 위쪽에 있는 산봉우리. 1960년대에 통신 부대가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632.5m이다.
- 공노쪽뿌리바위 : 읍안과 원모루 사이. 즉, 청라 소재지 바로 뒤에 있는 바위로 벼랑을 이루고 여러 글씨를 새겨 놓았다.
- 꽃봉 : 성주산 장군봉 동북쪽으로 내민 봉우리.
- 넓적날 : 넓적날봉 밑에 있는 능선. 해발 300m쯤에 밭이 개간되어 있다. 이곳 밭이 라원리 1번지이다.
- 넓적날봉 : 백월산 상봉 남쪽 500m쯤에 있는 봉우리.
- 노루목고개 : 자작골에서 새내로 넘어가는 고개.
- 노적봉 : 월티저수지 북쪽의 작은 봉우리. 노적가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느리동말랭이 : 자작골의 큰작골 위에 있는 산봉우리.
- 느진목이굴 : 라원리 상중 월티저수지 동쪽의 큰 골짜기. 안에 많은 골짜기를 포함하고 있다.
- 다리건너 : 원모루의 청라교 동쪽 마을.
- 다리재 : 월티저수지에서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360m이다.
- 다리티 : 청라면 라원리 상중의 남동쪽 마을. 라원리에서 남양면 백금리로 넘어가는 다리재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 다리티저수지 : 월티저수지.
- 달치 : 다리티 마을의 다른 이름.

- 도깨비뚝병보 : 나원교 바로 위쪽 보.
- 도토산골 : 꽃봉의 서남쪽 골짜기.
- 독암재빼기 : 읍안에서 옹골로 넘어가는 재.
- 동녘보 : 읍안 동쪽에 있는 보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력보라고 부른다.
- 동녘쪽뿌리 : 읍안 마을 동쪽 산기슭.
- 막내골 : 월티 저수지 남동쪽 마지막 골짜기로, 큰 가능굴과 작은 가능굴이 있다.
- 매봉재 : 읍안 뒤의 뽕쪽한 산.
- 멩덕골 : 고지 북쪽에 있는 멩덕봉 서쪽 골짜기.
- 멩덕봉 : 상중 고지 북쪽에 있는 뽕쪽한 봉우리. 벌 멩덕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멩덕봉 : 월티(月峙) 서남쪽에 있는 작고 높은 봉우리.
- 무랑골 : 다리티로 흘러오는 하천이 있는 골짜기.
- 문다래미 : 백월산 상봉에 나타나 있는 지층으로 양쪽에 역암 층이 나타나 있고 가운데는 침식되어 골짜기를 이룬 곳이다. 옛날 천지개벽할 때 이 골짜기로 배가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 미륵산골 : 불무굴 서남쪽 골짜기.
- 미진목 : 라원리의 서남쪽 골짜기.
- 바랑골 : 질굴 서쪽 골짜기.
- 바리미 : 자작굴의 서쪽 골짜기. 김성우 장군 묘가 있고 광산 김 씨 재실이 있다.
- 반여대 : 성주산 장군봉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 발산(鉢山) : 바리미의 한자식 표현.
- 방독매들 : 다리티 마을 동쪽에 있는 들.
- 방독매 : 상중 월티 저수지 제방 바로 남쪽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
- 백월산 : 보령시 청라면과 청양군 화성면, 남양면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높이 570.0m로 경사가 급하다.
- 범의굴 : 새내 흥두개날 남쪽의 골짜기.
- 부영굴 : 새내 새터굴 서쪽 골짜기.
- 부영박굴 : 상중 새태굴 서쪽 골짜기.
- 불무굴 : 멩덕봉 남쪽 골짜기.
- 비둘기바위 : 월티저수지 제방 북쪽에 있는 바위.
- 사지미굴 : 자작굴 큰작굴 위에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산바위 : 새알봉의 북쪽 산 능선 끝으로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근에 TV 중계탑이 있다.
- 산팽이 : 은선동 산바위 밑에 있는 평평한 사면, 밤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
- 삼바굴 : 음안 마을과 동녘쪽뿌리 사이의 작은 골짜기.
- 상봉 : 백월산 정상을 부르는 이름.
- 상중(上中) : 1960년대 라원리의 2구 중 1구. 새터마을을 부르는 다른 이름.
- 상중리(上中里, 위익낭) : 위익낭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내 : 라원리 동북쪽, 백월산 상봉 서남쪽 골짜기로, 평평하고 깊어 예로부터 주민이 거주하였다. 1910년대 초 토지조사사업 이전부터 토지를 개간하고 주민이 거주하여 이곳부터 라원리 번지를 부여하였다.
 윗새내와 아랫새내로 나누어지는데 윗새내에는 1~10 번지가 있고 아랫새내에는 11~18번지가 있다고 한다. 주민이 가장 많을 때는 6가구였으나 1992년부터 주민이 살지 않고 논밭은 모두 버려져 있다. 현재는 다시 1가구가 산다.
- 새내재 : 자작굴에서 새내 노루목으로 넘어가는 고개.
- 새너물보 : 윗티저수지 바로 밑에 있던 보.
- 새달굴 : 꽃봉 밑에 있는 골짜기로 바람굴의 서쪽이다. 무랑굴로 물이 흐른다.
- 새미굴 : 윗티저수지 제방 남쪽 골짜기.
- 새알밭 : 새알봉 밑에 있는 산 능선. 이곳은 작은 자갈로 된 역암이 풍화되어 새알 처럼 생긴 자갈로 덮여 있다.
- 새알봉 : 은선동에서 서남쪽으로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
- 새터 : 상중 마을 중앙에 있는 취락의 밀도가 가장 큰 마을.
- 새터굴 : 소양리 새터 삼바굴 서쪽 골짜기.
- 샌동 : 은선동 서쪽 골짜기 마을.
- 생수적굴 : 미륵산굴 남쪽 골짜기.
- 생이성굴 : 생이적굴의 다른 이름.
- 서낭댕이 : 원모루 다리 건너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 서낭댕이 : 자작굴 서쪽 마을에서 바리미 송상굴 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다. 참나무가 신목으로 보호되었다.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 석대 : 장군봉 북쪽 뾰족한 산 전체를 말한다.
- 석대절굴 : 석대의 가운데 골짜기로 과거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소란이들 : 다리티 마을 서쪽에 있는 들.

- 소리개재 : 윗새내에서 소양리 소리굴로 넘어가는 고개.
- 소리굴재 : 자작굴 서쪽 마을에서 소양리 소리굴로 넘어가는 고개.
- 소정보 : 신당보 밑에 있던 보로 물레방아가 있었기 때문에 방아보라고도 하였다.
- 송상굴 : 자작굴의 바리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민의 거주는 없다.
- 쇠말봉 : 성주산 주봉인 장군봉 서쪽 봉우리.
- 수랑들 : 라원리 서쪽의 들.
- 수랑들 : 청라면의 소재지 중 원모루의 서쪽 지역을 말한다. 원래 주변이 수랑논으로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수루배미 : 상중 다리터 위쪽에 있는 들.
- 수리암 : 라원리 옹골의 8부 능선에 있는 절.
- 수리재 : 다리터와 성주면 성주리 심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489.8m이다.
- 숯거리 : 은선동 산팽이 밑에 있는 골짜기. 산동의 서쪽에 있다.
- 신당구레 : 윗티저수지 밑에 있는 들.
- 신당보 : 새너물보 밑에 있던 보.
- 싹바굴 : 새내 막내골의 서남쪽으로 난 골짜기. 큰싹바굴 작은싹바굴 가운데싹바굴로 나누어진다.
- 아랫새내 : 새내의 아래쪽 마을.
- 안산 : 새내 서쪽 산.
- 엉덕내 : 은선동을 흘러내리는 내. 깊은 골짜기 속을 흘러서 부르는 이름이다.
- 옹골 : 원모루 북동쪽 골짜기로 꼭대기에 수리암이 있다.
- 완령(緩嶺, 느진목이고기) : 라원리 다리터 느진목이고기 <1911, 朝鮮地誌資料>
- 움안 : 나원리 돌모루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 산으로 3방향에 둘러싸이고 남쪽으로 내가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노인들은 움안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음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옹골 : 옹골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원닥골 : 상중 새미골 동쪽 골짜기.
- 원모루 : 청라면의 소재지가 있는 마을. 면사무소 초등학교 지서, 농협, 우체국 등 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다. 청라원(靑蘿院)과 관계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 원모루다리 : 청라교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 원우(院隅) : 1960년대 청라면 라원리를 2구로 나누어 원모루 수랑들 턱거리 음안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던 이름. 원모루의 한자 표기.

- 원우동(院隅里, 원모루) : 라원리 ‘원모루’ <1911, 朝鮮地誌資料>
- 원우보(院隅湫) : 라원리 원모루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원우점(院隅店, 원모루주막) : 라원리 원모루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원우천(院隅川) : 라원리 원모루내 <1911, 朝鮮地誌資料>
- 월치(月峙) : 다리티의 한자 표기.
- 월치리(月峙里, 다리티) : 라원리 다리티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월티저수지 : 새내 입구에 있는 저수지로 청천저수지와 같은 해에 준공하였다.
- 윗새내 : 새내의 위쪽 마을
- 윗잉낭 : 상중의 새터와 소양리 아래익낭 사이의 긴 마을이다. 냇물의 남쪽과 북쪽 마을을 모두 윗잉낭이라고 한다.
- 은선동(隱仙洞) : 상중 남동쪽 마을이다.
- 은선안골 : 성주산 장군봉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음안 : 음안의 다른 이름. 요즈음은 ‘음안’이라고 많이 부른다.
- 자작굴 : 나원리 상중의 북쪽 마을로, 청라면 소양리와 경계를 이룬다.
- 작은쌈바굴 : 상중 쌈바굴의 제일 동쪽 골짜기 홍산재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 작은옹굴 : 옹굴의 남쪽 골짜기.
- 작은작굴 : 자작굴의 큰작굴 서쪽 골짜기.
- 작은절터굴 : 절터굴의 북쪽 골짜기. 옛날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장구목 : 상중 명덕골 남쪽 골짜기.
- 잣밭들 : 은선동 북쪽에 있는 들.
- 절터굴 : 윗새내의 북쪽 골짜기. 작은절터굴과 큰절터굴이 있다.
- 점산 : 은선동 서쪽에 있는 산으로, 산 동쪽에 옹기그릇을 굽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점터굴 : 새미굴 밑에 있는 골짜기. 그릇 굽던 점의 흔적이 있다.
- 제피굴 : 새알봉 서남쪽 골짜기.
- 조천(鳥川) : 새내의 한자식 표기.
- 조통굴 : 윗새내의 서북쪽 골짜기.
- 줄바위 : 새내의 헤맥이고랑 북쪽에 있는 바위.
- 줄바위너머 : 새내의 줄바위 동남쪽 골짜기.
- 줄바위논 : 새내의 줄바위 동쪽에 있는 논.

- 주택촌 : 음안 남동쪽 마을. 광산 근로자들의 취락이었다.
- 주평리(酒坪里, 슈랑수들) : 라원리 ‘수랑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지암골 : 새알봉 동쪽 골짜기.
- 지천리(芝川里, 자즈골) : 라원리 자작골 <1911, 朝鮮地誌資料>
- 진등 : 상중 멩덕봉 밑에서 월티저수지 제방 남쪽으로 내려온 길고 평평한 능선.
- 질굴 : 다리티 남쪽 골짜기로 수리재를 통하여 성주면으로 넘어간다.
- 집진바위 : 미진목 골짜기 서쪽에 있는 바위.
- 초고리 : 월티저수지 남쪽 골짜기.
- 큰고랑 : 자작골 큰작골 위에 있는 서쪽으로 난 골짜기.
- 큰골고개 : 아랫새내에서 소양리 큰골로 넘어가는 고개.
- 큰쌘바골 : 상중 쌘바골의 서쪽 골짜기.
- 큰웅굴 : 웅굴의 북쪽 골짜기.
- 큰작골 : 자작골의 동쪽 골짜기.
- 큰절터굴 : 절터굴의 동쪽 골짜기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
- 턱거리 : 청라면의 소재지 취락 중 원모루와 수랑들 남쪽을 말한다.
- 턱거리들 : 라원리 턱거리 마을 남쪽의 들.
- 헤맥이고랑 : 헤맥이재 밑 골짜기.
- 헤맥이재 : 새내에서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 흥두개날 : 새내 시상굴 남쪽에 백월산에서 서쪽으로 내민 산자락.
- 홍산재 : 작은 쌘바골에서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로 통하는 고개로, 옛 홍산현으로 통하는 고개라는 의미로 홍산재라고 불렀다.
- 흘레덩쿨 : 자작골 큰작골 서쪽의 산 능선.



라원리 원경(1993)



음안(2008)

3. 소양리(昭陽里)

본래 보령군 청라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리동(昭理洞), 둔대리(屯垓里), 입티(廿峙里), 양지리(陽地里), 정산리(丁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소리(昭理)와 양지(陽地)의 이름을 따서 소양리라 하였다.

- 가낭굴 : 양지편의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 가상굴 : 채산과 뒀별 사이의 골짜기로 꼭대기에는 서낭이 있다.
- 가상굴고개 : 양지편 가낭굴에서 가상굴로 넘어가는 고개.
- 가재바탕고랑 : 왕재 바로 밑 골짜기.
- 감부굴 : 둔터의 수박굴 서쪽 골짜기.
- 고린장터 : 산제당 밑에서 양지편 쪽으로 뺀 경사가 완만한 능선으로, 백제 시대 고분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무래봉 : 육굴을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 고무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공바탕 : 당산 서쪽의 평평한 곳으로 옛날 나무꾼들이 공을 치며 놀던 곳이다.
- 광새너머 : 둔터의 뒀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구렁목재 : 소양리 증뜸에서 화성면 장계리 구렁목으로 넘어가는 고개.
- 넓적말 : 불탄굴 서쪽 번덕지.
- 느리봉 : 소리굴 동남쪽의 봉우리로 높이 266.0m이다.
- 느작굴 : 소리굴 느리봉 남쪽의 골짜기.
- 당산 : 스뭇티 마을 서북쪽의 산으로 높이 197.2m이다. 주민들은 당제를 지낸 기억이 없고 옛날에 지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곳으로 상여가 못 간다는 금기가 있다.
- 당산고랑 : 당산 밑 골짜기.
- 당산재 : 쪽계미골에서 매봉재로 오르는 재.
- 당샘 : 당산고랑에 있는 샘으로 근래까지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였다.
- 돌봉 : 운흥사 북쪽의 봉우리로, 소리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뒀재 : 둔터 위뜸에서 백월산으로 오르는 고개. 경사가 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뒀밭 : 육굴 서쪽의 산봉우리이다. 라원리와 경계를 이룬다. 높이 147.2m 이다.
- 뒀별 : 양지편 마을과 가상굴 사이에 있는 산으로, 경사가 급한 비탈 산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보령 지방에서 흔히 비탈 산을 ‘비알’이라고 하고 경사가 급하여 오르는 데 힘이 드는 것을 ‘되다’라고 한다.

- 둔대(屯垓) : 1960년대부터 부른 소양리 2구 중 1구. 둔터의 한자 표기
- 둔터 : 소양리 동북쪽 마을로 화성면 장계리와 접한다.
- 둔터굴 : 둔터.
- 판뫼고랑 : 안산 남쪽의 고랑. 스뫼티로 들어오는 도로변이다.
- 띠아골 : 목매골고랑 남쪽의 작은 골짜기로 뽕밭이 있었다.
- 맞추쟁이 : 판뫼고랑과 띠아골 사이의 산모퉁이.
- 말바위 : 스무티고개 남쪽 도로변에 있는 말처럼 생긴 바위. 근래까지 주민들이 위하던 바위이다. 침식되고 남은 기반암의 노두(露頭)이다.
- 매봉재 : 수리바위 남쪽 봉우리이다.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곤 하였다. 높이 189.0m이다.
- 목매골고랑 : 안산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을 통하여 산재고랑 가와집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 백월산(白月山) : 읍 동쪽 25리 청양 홍산과의 경계 <1911, 朝鮮地誌資料>
- 범터거리 : 채산의 동남쪽 끝.
- 불탄골 : 작은 패골 서쪽 골짜기.
- 산재고랑 : 안산과 스뫼티고개 사이의 고랑. 기와집으로 불리는 전주 이 씨의 재실집이 있다.
- 산제당 : 둔터 큰골의 7부 능선에 있다. 마을에서 지낸 지는 아주 오래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근래까지 제를 지냈다.
- 산제당 : 양지편 산제당말랭이의 7부 능선쯤에 있던 산제를 지내던 곳이다. 특별한 당집은 없었고 평평한 바위(번질바위)에서 지냈다. 1960년대까지 정월 초사흘에 지냈다. 쌀 한 되씩을 건립해서 지냈는데 주, 과, 포, 떡을 썼으며 육류는 금기로 여겼다.
- 산제당말랭이 : 양지편 북쪽의 산봉우리로, 봉우리 밑에 산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207.7m이다.
- 살밭봉 : 소리굴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 157.1m이다.
- 상봉 : 둔터 남쪽에 있는 뽕쪽한 봉우리. 소리굴 쪽에서는 돌봉이라고 부른다. 높이 278.3m이다.
- 소리개재 : 태방굴 위쪽의 고개로 라원리 진목이골로 통한다.
- 소리굴 : 소양리의 동남쪽, 소양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운흥사 밑 마을이다.

462 • 청라면

- 소리동(昭里洞, 소리골) : 소리골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송충이 : 점부굴 밑 능선.
- 쇠도독굴 : 음산의 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 수리바위 : 쪽계미골 서쪽 산 정상으로 내현리·소양리·라원리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높이 183.8m
- 수막굴 : 둔터의 광새너머 서쪽 골짜기.
- 수뭇고개 : 스뭇티의 다른 이름. 36호 국도변에 있는 마을을 일컫기도 한다.
- 스뭇고랑 : 스뭇티 마을 앞에 있는 들.
- 스뭇구레 : 스뭇고랑 아래쪽의 들로,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스뭇티 : 보령시 청라면에서 청양군 화성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국도 36호선이 지난다.
- 스뭇티 : 소양리의 북쪽 마을이다.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와 경계한다. 마을의 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정자나무가 있어 마을의 역사를 말 해 준다.
- 스뭇티 : 스뭇티 마을과 산재고랑 사이의 고개. 즉, 안산의 북쪽에 있는 산 고개를 일컫기도 한다.
- 아래매차골 : 점말 작은 매차골을 말함
- 아랫말 : 둔터의 아래쪽 마을이다. 새마을 회관이 있다.
- 안굴재 : 양지편에서 내현리 안굴로 넘어가는 고개.
- 안굴재골 : 양지편 마을의 서쪽 골짜기이다. 내현리 안골로 넘어가는 재 밑의 골짜기 라는 뜻이다.
- 안산 : 스뭇티 서쪽 즉, 스뭇티와 둔터 사이의 산이다.
- 양지편 : 스뭇티 남쪽 마을. 청라면 내현리와 경계하며 남향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전주 이 씨 효령대군 파가 세거한다.
- 양지편들 : 양지편 마을 앞 들.
- 오얏밭 : 짐바굴 서쪽 들을 말함.
- 옹기점재 : 가상굴과 짐바굴 사이의 고개이다. 채산 중앙을 통한다.
- 왕재 : 스뭇티에서 화성면 장계리 금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길이 王字처럼 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근처에 조대비(趙大妃) 아버지 산소로 전해지는 묘가 있다.
- 운흥사 : 작은은불 위에 있는 절로, 자연적으로 쌓은 석탑으로 유명하다.
- 위매차골 : 점말 큰매차골을 말함.
- 위뚝 : 둔터의 윗마을로, 해발 150-200m에 위치한다.

- 육굴 : 잉낭 북쪽에 있는 고무래봉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다.
- 육굴내 : 육굴 앞 하천.
- 은불 : 소리굴 운흥사 밑의 골짜기.
- 은산뜸 : 소리굴 남쪽에 있는 마을로, 북향으로 되어 있어 은산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 음산 : 스무티 마을 서쪽에 있는 산이다.
- 잉낭 : 육굴 앞 평지에 있는 마을이다. 가옥의 밀도가 상당히 높다. 아래잉낭과 윗잉낭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래잉낭이 소양리에 속한다. 과거에는 가옥이 몇 가구 안되어 양지편과 함께 두레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 작은매차골 : 큰 매차골 남쪽의 골짜기.
- 작은은불 : 소리굴 운흥사 밑 골짜기.
- 작은패골 : 큰패골 서쪽 골짜기.
- 점굴 : 소양리 둔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사기를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사기그릇 파편이 많이 출토된다.
- 점부굴 : 소리굴 동쪽 봉우리 밑 골짜기이다.
- 점촌(店村) : 점굴
- 정산(丁山) : 1960년대부터 부른 소양리 2구 중 1구. 잉낭의 한자식 표기.
- 정산(丁山) : 고무래봉의 한자식 표기.
- 줄안날 : 둔터 윗말 동북쪽 능선. 화성면 장계리와 경계를 이룬다.
- 중뜸 : 둔터의 가운데 마을.
- 지편굴 : 점촌 동쪽의 평평한 능선으로, 일제시대에 금을 개발하였다.
- 짐바굴 : 은산뜸 서쪽에 있는 마을. 집이 2가구뿐이다.
- 짐바굴 : 쇠도독굴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쪽계미골 : 청룡뿌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채산 : 가상굴과 짐바굴 사이의 산.
- 청룡뿌리 : 양지편 마을 서남쪽에 뻗어 내린 산줄기로, 풍수설에서 좌청룡에 해당 되어 청룡뿌리라고 부른다.
- 초치리(廿峙里,스무티) : 소양리 스무티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큰굴 : 둔터의 동남쪽 골짜기로 7부 능선에 산제당이 있다.
- 큰굴 : 소리굴 태봉 남쪽의 골짜기.
- 큰매차골 : 점굴 남쪽의 골짜기.

- 큰은불 : 운흥사 남쪽의 골짜기.
- 큰괘골 : 왕재 밑의 골짜기.
- 태방굴 : 소리굴 태봉 북쪽의 골짜기.
- 태봉 : 소리굴 동쪽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로 높이 205.6m이다.
- 평반들 : 짐말 아래매차골 남쪽 구릉 위에 있는 들이다.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고 30여 년 전 지어진 집단 취락이 들어서 있다.
- 헤터굴 : 소리굴 살밭봉 뒤 골짜기.



소양리 원경(1993)



스무티(2008)

4. 신산리(新山里)

본래 보령군 오삼전면(吾三田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건천리(上乾川里), 하건천리(下乾川里), 박산리(朴山里), 신평리(新坪里)와 하장전리(下長田里), 음현리(奄峴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평(新坪)과 박산(朴山)의 이름을 따서 신산리(新山里)라 하였다.

청양군 화성면과 접하여 청양군과 관계 깊은 마을이다. 중학교 학군은 현재도 화성중학교 학군에 속한다.

- 가가쪽뿌리 : 여우내의 서쪽. 즉, 구레굴과의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 감나무골 : 여우내와 새말 사이의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건천(乾川) : 신산리의 중심 마을이다. 윗건천과 아랫건천으로 나누어진다. 화암천의 최상류 지역으로 오서산 쪽에서 흐르는 내는 항상 물이 흐르는 데 비하여 이 곳 신산리 쪽에서 흐르는 내는 수역이 좁고 산이 낮아 평상시에는 말라붙고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며 하천 제방이 주변의 논보다 높은 소위 천정천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옛 지리지에도 乾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래 불리던 순수 우리말 표현은 ‘여우내’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윗건천을 지금도 ‘여우내’라고 부른다.

- 공밭 : 새말 북쪽 산 능선에 있는 밭이다.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나무꾼들이 모여 나무나 짚으로 만든 공을 치며 놀았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렁고개 : 알매골과 구렁목 사이의 고개.
- 구렛골 : 정자밑과 섬배기 사이의 들이다. 수령논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구수굴 : 부수굴 서북쪽 마을 회관의 뒤쪽 골짜기이다.
- 꾸자굴 : 여우내의 요굴고랑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너멍굴 : 구렛골 위쪽 골짜기.
- 뒷봉 : 박살피 남쪽에 있는 봉우리. 해발 287.0m 이다.
- 덩경샘 : 여우내 마을 가운데에 있는 샘이다.
- 매봉재 : 박살피 서남쪽에 있는 봉우리로 220.0m이다.
- 매봉재 : 신산리와 음현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높이 287.0m이다.
- 매채기 : 매봉재 쪽에서 고인돌 있는 곳으로 내민 낮고 긴 능선.
- 매채기골 : 박살피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두 논으로 되어 있고 근래 경지 정리를 완료하였다.
- 물고개 : 부정실 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새말에서 화성면 화강리 물고개로 넘어 간다. 이 고개를 통하여 화성면 화강리에서 물이 넘어와 새말 앞뜰에 물을 대었다. 화강리에 특별히 축조한 보는 없었고 자연히 나오는 물을 넘겼다. 신산리 사람들이 소유한 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한다. 물꼬싸움이 많았었다고 한다.
- 바위안 : 여우내 서쪽 산밑 지역으로 큰 바위 안쪽이라는 뜻이다. 이 큰 바위는 기반암이 노출된 것으로 현재 대밭 속에 있다.
- 바위안샘 : 여우내의 큰 바위 남쪽에 있는 샘이다.
- 박산(朴山) : 박살피의 한자식 표기.
- 박산 : 박살피 마을 뒷산. 즉, 뒷봉을 부르는 다른 이름.
- 박살피 : 매봉재 밑(북쪽) 마을이다. 밀양 손씨가 세거한다.
- 보두막 : 가가쭈뿌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수굴 : 박살피 북쪽에 있는 골짜기. 집이 몇 채 있다.
- 부정실고개 : 새말에서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는 낮고 화성면 화강리 농암리로 이어지는 큰 길이 있다.

- 사당골 : 박살피 남쪽 체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산제샘골 : 용샘골의 다른 이름.
- 살푸쟁이 : 여우내 북쪽에 있는 산으로, 장현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이다.
- 새말 : 윗건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옥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 영광김씨가 세거했다.
- 서낭고개 : 덕너머와 알매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옛날에 서낭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 서반창 : 서낭고개 능선의 서남쪽 끝으로 집이 두 채 있다. 알매골에서 619번 지방도로 이어지는 길 옆이다.
- 석봉 : 정자밑 마을 뒤에 있는 봉우리.
- 설피골 : 동구봉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설미논 : 구령목 서쪽에 있는 논.
- 섬배기 : 윗건천 앞에 있는 섬처럼 생긴 봉우리이다. 위에는 정자나무가 서 있다.
- 셋대배기 : 매봉재 북쪽의 능선. 솟대와 관련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현(水峴, 물고기) : 물고개. <1911, 朝鮮地誌資料>
- 술마고개 : 물고개와 물편이고개 사이의 고개이다. 화성면 화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시영재 : 신산리 정자밑에서 장현리로 넘어가는 고개.
- 신산리 : 1반 알매골·덕너머·구령목, 2반 박살피, 3반 새말, 4반 윗건천, 5반 정자밑·구레골, 6반 윗건천.
- 신상돈효행비(申相敦孝行碑) : 여우내 남쪽에 있는 평산신씨 신상돈의 효행비.
- 신촌(新村) : 새말의 한자식 표기.
- 아랫장고개 : 구렛굴에서 장산리 장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 장고개의 아래에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구렛굴 : 구렛굴 안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여우내 : 윗건천의 전래 이름이다. 보령 지방에서는 마른 것을 ‘여위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윗건천의 하천이 비 올 때만 흐르고 평상시에는 말라붙어 있어 마른 내라는 의미로 붙여졌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여우같이 비 올 때만 잠깐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乾川이라는 지명은 ‘여우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옥녀봉 : 장고개 바로 남쪽 봉우리. 신산리 여우내 마을이 풍수적으로 옥녀직금

(玉女織錦)형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요굴고랑 : 여우내에서 살푸쟁이 쪽으로 난 큰 고랑.
- 용샘골 : 부수굴과 박살피 사이에 있는 고개. 이곳에는 용샘이 있어 산제 지낼 때 사용하였다. 산제샘골이라고도 한다.
- 윗건천 : 신산리의 북쪽 끝 마을이다. 오서산의 줄기가 내려와 북·동·서를 감싸고 정남향으로 터져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평산 신 씨, 무안 유 씨가 세거한다.
- 은고개 : 음고개의 다른 표현.
- 음고개 : 신산리 구렁목에서 음현리로 넘어가는 고개.
- 장고개 : 윗건천 장현리 터골로 넘어가는 고개. 이 고개로 대천 시장에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장자터골 : 둥구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쟁재미 : 노인들이 정자미를 부르는 이름.
- 정자밀 : 신산리 서쪽 장현리와 접하는 마을이다.
- 정주재 : 정자밀 마을과 구랫골 사이의 고개.
- 조산구레 : 여우내 마을의 섬배기 밑에 있는 들. 물이 마르지 않는 논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종주재 : 덕너머에서 박살피로 넘어가는 고개.
- 체분골 : 박살피 마을에서 뒷봉으로 오르는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옛날에 초분이 많았었다고 한다. 노인들도 보지는 못하고 옛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 하건점(下乾店, 아리건천주막) : 아래건천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흥주고개 : 박살피에서 화성면 화강리로 넘어가는 고개.
- 황개샘 : 새말과 여우내 사이에 있는 샘.



박살피(2008)



섬배기 느티나무(2008)

5. 옥계리(玉溪里)

보령군 오삼전면(五三田面)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시궁동(柴弓洞), 정동(貞洞), 서촌(西村), 길현리(吉峴里), 하룡리(下龍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옥계리라 하였다.

- 가그메보 : 오얏이보 위에 있는 보. 70여 마지기에 물을 댐.
- 가그메보들 : 안골 앞에 있는 들.
- 가는골 : 정굴에 있는 골짜기로 석배나무골의 맞은쪽에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 가마봉 : 길마재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
- 가장굴 : 아랫길마재 앞에 있는 들.
- 감나무골 : 원옥계 북쪽의 골짜기. 감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개죽은골 : 중산골 위쪽 골짜기.
- 개중굴 : 길마재의 사기점굴과 소도독굴 사이의 골짜기. 개가 죽은 골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 고란골 : 두집매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 고란골 너머에 단지골이 있다.
- 고름팡굴 : 안골의 제일 깊은 골짜기.
- 고염나무골 : 정굴에 있는 골짜기. 뒷굴의 북쪽에 있다.
- 공동묘지 : 정굴의 노루목재 위에 있는 공동묘지.
- 관음사 : 정굴의 절굴 위에 있는 절. 옛날 공주 계룡산 밑에 살던 어느 여자 노인이 꿈에 굴을 찾아가라는 현몽이 있어 이곳 옥계리 정굴, 절굴에 있는 굴을 찾아와 짚을 깔고 혼자 살았는데,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밑에다 집을 지어준 것이 관음사라고 전한다.
- 구역말 : 정굴 입구의 마을. 이곳에 능성 구 씨가 살았는데 9억말의 타작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다. 청천저수지 축조로 모두 이주하였다.
- 굴구멍 : 정굴 관음사 위에 있는 굴로 물이 나온다.
- 금점골 : 은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단지골의 맞은쪽, 즉 은골의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 길마재 : 길마재 마을에서 청소면 성연리로 넘어가는 고개.
- 길마재번덕지 : 시궁굴에서 길마재로 넘어가는 길. 주변이 평평한 곳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길마재재 : 시궁굴에서 길마재로 넘어가는 고개.
- 길마재저수지 : 윗길마재에 있는 저수지.
- 길현(吉峴) : 길마재의 한자식 표기.
- 꽃봉 : 원옥계와 장산리 질굴의 지방골 사이에 있는 봉우리.
- 냇은터 : 윗길마재 뚝솔밭 바로 위쪽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 너분동 : 원옥계 북쪽 시궁굴 입구에 있는 들.
- 너분동보 : 너분동에 물을 대기 위한 보.
- 노냥굴재 : 시궁굴의 절골에서 청소면 노냥굴로 넘어가는 고개.
- 노누굴 : 안골과 서촌 사이의 골짜기. 작은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 위쪽을 부르는 이름이다. 옛날 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글을 읽었다는 전설이 있다.
- 노누굴방죽 : 노누굴에 있는 소류지.
- 노누굴산 : 노누굴과 서촌 사이에 있는 산.
- 노누굴윗방죽 : 노누굴에 있는 작은 소류지.
- 노루목재 : 원옥계에서 정굴로 넘어가는 고개.
- 낫점굴 : 시궁굴 안쪽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옛날에 낫쇠를 구웠다고 한다.
6·25 사변 전에 석탄을 캐기도 하였다.
- 낫점굴재 : 시궁굴 함박굴에서 질굴의 낫점굴로 넘어가는 고개.
- 느릅나무들 : 노누굴 소류지 밑에 있는 들.
- 단지골 : 은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골의 북쪽에 있다.
- 당목재 : 윗길마재에서 황룡리 냇터로 넘어가는 고개.
- 당산말림 : 서촌 서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과거에 산제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내는 것을 본 주민은 없다.
- 도깨비둑병 : 부엉배 밑에 있던 웅덩이로 아이들이 목욕을 하였다.
- 독보 : 원옥계 앞쪽에 있는 독보들에 물을 대던 보. 경작자가 1사람뿐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물이 넘어가는 곳에 바위가 있어 바위에 골을 파 물을 넘기고 있다. 장굴로 통하는 다리의 바로 위쪽에 있다.
- 돌참너덜 : 시궁굴 입구의 서쪽에 있는 돌 너덜. 산의 경사가 급하고 암벽과 바위 너덜로 되어 있다. 현재는 나무로 덮여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없는 돌너덜이었다.
- 두집매 : 안골과 옥계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 현재는 세 집이 있으나 과거에는 두 집이 있었던 것 같다.

- 돌제굴 : 정굴에 있는 골짜기로 빗독굴의 북쪽에 있다.
- 돛병굴 : 안굴 북서쪽의 고랑. 관개용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뒷굴 : 정굴 입구에서 서쪽으로 난 첫 번째 골짜기이다.
- 따볼재 : 시궁굴에서 청소면 느락굴로 통하는 고개.
- 똥솔밭 : 윗길마재의 서낭당이굴과 큰재골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똥무더기 같은 언덕.
- 막내들 : 길마재 저수지 밑에 있는 들.
- 막내들저수지 : 길마재 입구에 있는 저수지.
- 말방울비탈 : 시궁굴의 안쪽에 있는 산 비탈.
- 미리재 : 윗길마재 큰재골에서 청소 성연리로 넘어가는 고개.
- 방아뒷보 : 가장굴 밑에 있는 보.
- 배나무밑 : 시궁굴 질마재번덕지에 있는 아가배나무 있는 곳을 부르는 이름이다.
- 배암날 : 길마재 용둑병의 위쪽에 산자락이 하천 쪽으로 내민 곳. 뱀의 형국이라 제비당의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전설이 있다.
- 백미장굴 : 아랫길마재에 있는 골짜기. 막내들 저수지 서쪽에 있다.
- 병거지재 : 옥계리 원옥계에서 장산리 서원말로 통하던 고개
- 병풍산 : 시궁굴 입구 시궁교를 지나 동쪽에 있는 절벽으로 된 산이다. 골짜기도 없이 병풍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 복생이말림고랑 : 시궁굴 시궁교 남서쪽 골짜기. 과거 복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말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무가 귀하던 시절에는 연고가 있는 산은 남이 나무를 못 하도록 하고 자기만 독점적으로 하였다. 이런 산을 말림이라고 한다.
- 부영배 : 옥계리와 장산리 사이의 병거지재에 있던 큰 바위.
- 부영배들 : 옥계리와 장산리 사이의 부영배 앞에 있던 들. 청천저수지로 수몰되었다.
- 붉은물나는골 : 정굴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철분이 산화된 붉은 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빗독굴 : 정굴에 있는 골짜기로 함박굴의 북쪽에 있다.
- 빼쪽산 : 안굴 북쪽에 있는 산. 뽕쪽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기점굴 : 길마재의 점굴 위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사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 사당고개 : 정굴에서 안굴로 넘어가는 고개.
- 산작골 : 정굴에 있는 골짜기로, 빗독굴 맞은쪽에 있다.

- 산제당 : 절굴 위에 있는 과거 산제를 지내던 곳이다. 바위 절벽일 뿐 제당은 없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신목이다. 6.25 사변 전에는 지냈으나 없어졌다. 과거에는 쇠말(鐵馬)이 있었으나 누군가 부수어 씨아가락(목화씨를 빼내던 기구)을 만들어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 상투바위 : 시궁굴 입구의 채석장과 시궁교 사이에 있던 상투처럼 생긴 바위로, 채석장 때문에 없어졌다.
- 생샘이보 : 구억말 앞에 있던 보.
- 생샘이보들 : 생샘이보의 물을 대던 들.
- 서낭당이 : 길마재 꼭대기에 있다.
- 서낭당이 : 부엉배에 있던 서낭당으로, 이 곳에 있던 나무를 벤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도로 확장 공사로 모두 없어졌다.
- 서촌(西村) : 1960년대부터 부른 옥계리 2구 중 1구.
- 서촌 : 옥계리의 맨 동쪽 마을이다. 달성 서 씨의 집성촌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달성 서 씨 徐漢慶의 호자문이 있다.
- 서촌내 : 서촌 앞을 흐르는 내이다. 길마재에서 발원하여 화암천으로 합류한다.
- 석배나무굴 : 정굴에 있는 골짜기로, 둘째굴의 북쪽에 있다.
- 선바위 : 시궁굴 입구 시궁교 바로 앞에 있는 바위로, 다리를 만들기 전에는 상당히 높게 우뚝 솟은 바위였는데 다리 공사로 흙을 메워 낮게 보인다. 과거부터 시궁굴 사람들이 위하던 바위이다.
- 소도둑굴 : 윗길마재의 서쪽 골짜기. 골짜기가 깊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 쇠대배미 : 안골 앞에 있는 논. 열쇠처럼 길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순이말림 : 노누굴 위쪽의 산. 순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던 산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시궁(柴弓) : 시궁굴의 한자식 표기.
- 시궁교(柴弓橋) : 시궁굴 입구의 다리.
- 시궁굴 : 옥계리 원옥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능성(綾城) 具 씨 수암(睡庵) 구계우(具繼禹, 1558년 출생) 선생이 비인에서 이곳으로 처음 들어왔다. 지금도 이곳에는 능성 구 씨의 종산이 많다.
- 아랫길마재 : 서촌 바로 윗마을로 길마재의 아래쪽 마을이다.
- 안고랑 : 아랫길마재의 서쪽 고랑.
- 안굴 : 정굴과 노누굴 사이의 마을.

- 안산 : 시궁굴의 흘짜굴 위에 있는 산.
- 안치리(鞍峙里, 길마지) : 길마재 <1911, 朝鮮地誌資料>
- 야차돌 : 시궁굴의 함박굴 안에 있는 돌.
- 연애죽골 : 시궁굴의 황새골 서쪽 골짜기.
- 오얏이보 : 진뱀이보 위에 있는 보. 70~80마지기에 물을 댐.
- 옥계1리 : 1반 원옥계, 2반 원옥계, 3반 시궁굴, 4반 절골, 5반 안골.
- 옥계2리 : 1반 서촌, 2반 길마재, 3반 안길마재.
- 옥계리(玉溪里) : 원옥계 <1911, 朝鮮地誌資料>
- 용뚝병 : 길마재 제비당 밑에 있는 하천에 자연이 생긴 연못이다.
- 용못 : 옥계초등학교 앞의 옥계리와 황룡리 경계에 있는 깊은 연못이다. 요즈음은 많이 메워졌다. 예부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 용못들 : 옥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들.
- 용천골 : 옥계에서 장골로 넘어오는 도로 바로 위쪽에 있는 골짜기.
- 원옥계 : 옥계리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원래의 옥계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궁굴의 입구에 있다. 이곳에는 은행나무가 특히 많다. 마을 가운데에는 몇 아름 되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많이 열기로도 유명하다.
- 윗길마재 : 길마재의 안쪽 마을. 현재는 저수지가 축조되어 없어진 마을이다.
- 은골 : 안골 맞은쪽에 있는 골로, 느르실 쪽으로 뻗어 있다.
- 작은개죽은골 : 절골의 동쪽 골짜기.
- 작은당골 : 윗길마재의 큰당골 서쪽 골짜기. 즉, 사기점골 맞은쪽 골짜기.
- 작은범죽골 : 시궁굴의 병풍산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조락골 : 시궁굴의 돌참너덜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
- 장골재 : 원옥계에서 장골로 넘어가는 고개. 지금은 포장되었다.
- 장수바위 : 청벽에 있는 바위로 높이 5~6 m가 된다. (청벽 참조)
- 절골 : 시궁굴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함.
- 절골 : 윗길마재 입구의 서남쪽 골짜기. 이곳에는 좋은 샘이 있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
- 절골 : 정굴에 있는 골짜기로 석배나무굴의 북쪽
- 정굴 : 옥계리 시궁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 정굴산 : 정굴 북쪽에 있는 산. 정굴과 길마재와의 사이에 있다.
- 정동(貞洞) : 1960년대부터 부른 옥계리 2구 중 1구. 정굴의 한자식 표기.

- 정동보(貞洞湫) : 정굴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제비당 : 길마재 백미장굴 북쪽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묘자리가 제비집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명당이기는 하나 앞에 배암날이라고 불리는 쪽뿌리가 있어 제비 새끼를 언제나 먹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묘의 자손이 성묘를 오면 배암날에 잡아먹혀 죽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멀리서 망배(望拜)만 하고 돌아간다는 전설이 있다.
- 조랭이형국 : 정굴 입구에 있는 노루목재로 통하는 곳이다. 지형의 생김새가 조랭이(조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중산골 : 시궁굴의 길마재번덕지 위에 있는 골짜기.
- 즈터굴 : 윗길마재 큰재골 안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진당산재 : 시궁굴에서 진당산으로 오르는 고개.
- 진뱀이보 : 생샘이보 위의 보. 40여 마지기에 물을 댐.
- 질마재 : 서촌 뒤쪽의 골짜기 마을을 통칭, 청소로 통하는 고개를 부르는 이름이었으나 재 밑의 마을을 통칭하게 되었다. 저수지 축조로 마을 대부분이 수몰되었다.
- 참봉이바위 : 시궁굴 입구 상투바위 위쪽에 있던 바위. 채석장 때문에 없어졌다.
- 채석장 : 큰조락굴 입구에 있다. 도로 포장재 등을 생산한다.
- 청벽 : 원옥계 맞은쪽, 저수지 건너에 있는 바위 절벽이다. 과거에는 이곳 절벽 밑으로 냇물이 흘렀다. 이곳의 장수바위에는 ‘玉溪’라고 붉게 쓴 큰 글씨가 새겨져 있다. 1995년 확인한 바로는 가운데에 ‘玉溪’라고 쓰고 붉은 점토를 발라 놓았으며 왼쪽에는 ‘三圃翁書’, 오른쪽에는 ‘崇貞後己酉’로 되어 있어 1669년에 마을의 친한 세 노인이 이곳에서 노닐면서 새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근처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바로는 광산 김씨, 용인이씨, 파평윤씨 세 노인이 새겨 놓았다고 한다.
- 큰개죽은골 : 시궁굴 작은개죽은골의 북쪽 골짜기.
- 큰당골 : 길마재의 배암날 윗쪽 골짜기.
- 큰범죽굴 : 시궁굴의 작은범죽굴 북쪽에 있는 서쪽으로 향한 골짜기이다.
- 큰재골 : 윗길마재의 북쪽 골짜기로 미리재로 통한다.
- 큰조락굴 : 시궁굴 입구 현재 채석장이 있는 골짜기.
- 턱굴 : 길마재 막내들저수지 동쪽의 작은 골짜기.
- 학자골 : 윗길마재 큰재골 안에 서쪽으로 들어간 골짜기.
- 함박굴 : 시궁굴 안 쪽에서 서남 쪽으로 난 골짜기.
- 함박굴 : 정굴에 있는 골짜기. 고염나무골의 서쪽에 있다.

- 흘짜골 : 시궁골의 큰범죽골 바로 위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홍굴재 : 원옥계에서 장산리 홍굴로 넘어가는 고개. 현재의 화암서원 뒤로 뚫려 있다.
- 황새골 : 시궁골 개죽은골 서쪽 골짜기.
- 황새집말랭이 : 정굴의 사당고개 밑 봉우리.
- 황용이들 : 노누골 느릅나무들 밑에 있는 들. 황룡리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황용이보 : 황용들에 물을 대던 보. 옥계초등학교 앞에 있음.



장수바위 玉溪 글씨(1995)



시궁골 정자나무(2008)



시궁골 석산(2008)



질마재저수지(2008)

6. 음현리(奄峴里)

본래 보령군 오삼전면(五三田面)의 지역으로서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고개가 많으므로 음고개 또는 음현리(奄峴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대리를 병합하여 음현리라 하여 청라면에 속하였다.

- 가상골고개 : 선유골에서 소양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 감낭굴 : 보논구레 남서쪽에 있는 마을.
- 금계동고개 : 새터에서 화성면 장계리 금계동으로 이어지는 고개.
- 내당산 : 움말 뒷산의 움말 쪽을 부르는 이름. 당산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 네거리 : 음현리의 중심 마을. 마을 회관과 정미소가 위치한다.
- 당산구레 : 네거리와 토막골 사이에 있는 들.
- 당안저수지 : 음현리 입구 내현리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저수지로 당안 앞쪽에 물을 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대굴 : 음현리의 최고 북쪽 마을로 장현리 도장굴과 이어지는 고개가 있다.
- 대숙굴 : 새터고랑 북쪽 방아다리 동쪽의 깊은 골짜기이다.
- 도롱메 : 새터위 남쪽에 있는 작고 동그란 산. 높이 120.6m
- 뒷굴 : 음현리의 남서쪽 골짜기.
- 등구봉 : 옥굴 북쪽의 산봉우리.
- 마장고개 : 뒷골에서 마쟁이로 넘어가는 고개.
- 마장고랑 : 뒷굴의 안쪽 골짜기.
- 매사리 : 토막골 서남쪽에 있는 들.
- 모탕이 : 바위배기골 북쪽의 음현리로 들어오는 좁은 모탕이.
- 바위백이 : 바위배기골에서 바위와 정자나무가 있는 곳.
- 바위백이골 : 선유굴의 입구. 즉, 당안저수지 위쪽에 있는 들, 들 가운데에 큰 돌이 있고 돌 옆에는 수백 년 묵은 정자나무가 있다. 이 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방아다리 : 새터위와 대숙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활석을 채취했던 광산이 있다.
- 백대장굴 : 안선유굴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범굴 : 옥굴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 범수막골 : 감낭굴과 대굴 사이의 골짜기로 집이 1가구 있다.
- 보논구레 : 대굴 서당굴 남쪽에 있는 들이다.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은 구레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산수굴 : 뒷굴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산제당 : 외당산의 꼭대기에 있었다.
- 새터 : 음현리에서 화성면 장계리 금계동으로 이어지는 금계동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과거에는 여러 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단 1가구만이 살고 있다.
- 새터고랑: 새터위 남쪽에 있는 들.

- 새터굴 : 새터위 마을 북쪽의 골짜기.
- 새터위 : 보논구레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논구레와는 도롱메라고 하는 작은 봉우리로 갈려 있다.
- 서당굴 : 대굴의 반대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선유굴 : 음현리의 남동쪽에 있는 긴 골짜기. 선유굴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1가구가 거주한다.
- 선유동(仙遊洞) : 음현리 선유굴 <1911, 朝鮮地誌資料>
- 선유동고개 : 안선유굴에서 새터[新垆]로 넘어가는 고개.
- 수물고개 : 새터에서 소양리 스무티로 이어지는 고개.
- 신대(新垆) : 새터의 한자식 표기.
- 신대고랑 : 신대말 서쪽에 있는 들.
- 안산 : 음현리의 가운데에 있는 산으로, 새터와 선유굴로 둘러싸여 있다. 높이는 215.7m이다.
- 안선유굴 : 선유굴 안쪽 골짜기로, 주민은 거주하지 않고 논과 밭으로 되어 있다.
- 안터위 : 네거리와 감낭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엄현리(奄峴里, 음고기) : 음현리 음고개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옷샘 : 백대장굴 밑에 있는 샘. 물이 좋아 옷이 울렸을 때 씻으면 나왔다고 한다.
- 외당산 : 움말 뒷산의 감낭굴 쪽을 부르는 이름. 산제당이 있었다.
- 옥굴 : 움말의 서북쪽 골짜기.
- 움말 : 네거리 서쪽 골짜기 속에 있는 마을이다.
- 음고개 : 신산리 구렁목에서 음현리로 넘어오는 고개. 음현리를 순수 우리말로 부르는 이름.
- 음현리 : 1반 대굴·보논굴·감나무굴, 2반 신대·새터, 3반 움말·안터·토막굴, 4반 뒤굴·산두굴·선유굴.
- 음현저수지: 음현리와 내현리 사이에 막은 저수지이다.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준공하였다. 제방 높이는 22m이고 길이는 80m이다.
- 점집 : 대숙굴에 있는 과거 옹기그릇을 굽던 자리.
- 테봉 : 당안저수지와 내현리 사이에 있는 봉우리이다.
- 테봉밭 : 테봉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에 있는 밭. 바위배기의 남서쪽이다.
- 토막굴 : 안산 서쪽에 있는 마을.



선유굴(2008)



음현저수지(2008)

7. 의평리(蟻坪里)

본래 보령군 청라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의평리(蟻坪里), 세곡리(細谷里), 상동리(上東里), 호동(狐洞), 평정리(坪亭里) 일부를 병합하여 의평리(蟻坪里)라 하였다.

- 가느실 : 의평리의 서쪽 청천저수지 북쪽 마을이다. 청천저수지의 축조로 고립되었다. 서너 채의 가옥이 저수지에 수몰되고 현재는 7~8가구가 거주한다.
- 가재굴 : 갯벌 당산 서쪽의 골짜기.
- 가재굴 : 여술 천수암 남쪽의 골짜기.
- 감나무들 : 의평리 관향말(저수지에 수몰됨) 앞들. 향천리 만천 앞까지 감나무들이라고 불렀다.
- 갯벌 : 청보초등학교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성주산의 산록으로, 주변은 모두 밭으로 이용된다. 고려말 김성우 장군이 이곳에서 왜구를 무찔러 왜구의 시체가 개미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있다.
- 갯벌 : 갯벌의 다른 이름.
- 골캐 : 의평리의 동쪽 새안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으로 개간되었으나 한때는 청라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되었다.
- 공동묘지 : 청라중학교 바로 뒤에 있었다. 논으로 개척하면서 남쪽의 성주산록 새안동말림으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는 새안동말림이 공동묘지이다.
- 관향말 : 가느실 서쪽의 마을이다. 3가구가 살았으나 청천저수지 건설로 모두 수몰되었다.

- 금점산 : 가느실 서쪽에 있는 산. 일제시대 금을 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느락번던 : 수박봉 밑에 있는 평평한 땅.
- 느리재 : 여술에서 군부대(연대) 쪽으로 가는 고개.
- 당감점(棠甘店, 당검의주막) : 평정리(坪亭里)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별정자에 있던 주막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당산 : 의평저수지 서북쪽에 있는 산봉우리로, 1960년대까지 당제를 지냈었다. 높이 121.4m이다.
- 당상봉 : 참나무북회에서부터 당산까지 내려온 긴 산줄기.
- 도화문 : 깎발 위뜸 당산의 서북쪽 끝이다. 이곳에서 산은 끝나고 평지로 이어지며 이 평지에 취락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에 桃花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 두무굴 : 여술과 음지뜸 사이에 있는 골짜기의 최상류 지역으로 상류에는 소류지가 있다.
- 뚱안너덜 : TV 중계탑 상봉에서 사자봉 쪽으로 발달한 산 능선.
- 백산골 : 사자봉 남동쪽의 골짜기. 골짜기 안에 오소리평벌, 병목안 등이 있다.
- 번덕지 : 청라중학교 북쪽의 평평한 땅.
- 별정자고인돌 : 별정자 마을 동쪽에 있던 5개의 고인돌이다. 현재도 청천저수지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 물을 빼면 노출된다.
- 별정자은행나무 : 별정자 고인돌 옆에 있었던 은행나무로, 암나무여서 많은 은행이 열렸다고 한다. 현재는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데 직경이 무려 2m에 이른다. 저수지 물이 줄어들면 노출된다.
- 별정자 : 가느실의 남동쪽 마을인데 청천저수지에 모두 수몰되었다.
- 범의턱거리 : 참나무북회 남쪽의 산 봉우리.
- 배망굴고랑 : 가느실 진등날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병목안 : 백산골 안쪽 골짜기. 병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분향굴 : 분향재 밑 마을.
- 분향재 : 음지뜸에서 분향리로 넘어가는 재.
- 비득굴 : 아랫깎발 진등 서쪽에 있는 골짜기. 비득굴재로 오르는 길이 있다.
- 비득굴재 : 의평리 깎발에서 성주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비적굴 : 수박봉 서남쪽 골짜기.
- 사기점번던 : 느락번던 밑에 있는 평평한 땅으로 옛날에 사기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 사자골 : 은문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사자봉 : 영보사택 바로 뒤에 돌출한 봉우리.
- 상동리(上東里) : 깎발 위뜸의 한자식 표기로 보인다.
- 새안동말림 : 의평리 남쪽 성주산 산록으로 TV 중계탑 아래쪽에 있는 평평한 산이다. 공동묘지가 있다.
- 새안들 : 청라중학교 뒤에 있는 완경사지이다. 이 지형은 성주산에서 침식된 토사가 쌓여 형성된 일종의 선상지이다. 이 새안들에는 금반형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져 많은 묘를 썼다.
- 새터 : 청보초등학교 서쪽 마을.
- 서낭댕이 : 아랫깎발 서쪽 길가. 장승백이라고도 불렀다.
- 세곡리(細谷里) : 가느실의 한자식 표기.
- 소대고랑 : 버드골 동쪽 골짜기.
- 소쟁이 : 여술 서쪽 마을로 청천저수지와 접한다.
- 수랑들다리 : 국도 36호의 청라중학교에서 청라 소재지로 통하는 곳에 있는 다리. 의평교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예부터 수랑들다리라고 불렀다.
- 수박봉 : 느락번던 남쪽에 있는 뽕쪽한 봉우리.
- 수사지봉 : 아랫깎발 진등의 북쪽 끝 지역이다. 사자봉의 서남쪽에 있다.
- 수재민사택 : 깎발 아래뜸에 있는 집단 취락으로 1979년 8월 수해의 수재민들을 위한 집단 취락이다.
- 시무굴 : 향천리 말머루와 의평리 드무굴 사이의 골짜기 마을. 의평리에 속한다.
- 아랫깎발진등 : 사자골 서쪽에 있는 콧날 같은 산줄기.
- 아래뜸 : 깎발의 북쪽 마을.
- 안산 : 의평리 남서쪽의 산. 과거에는 이곳에서 산제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여넛갈 : 성주산에서 발원하여 깎발을 흐르는 내.
- 여술 : 소쟁이 동쪽 마을로, 천수암이 있다.
- 영보사택 : 사자봉 앞에 있던 영보탄광 사택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모두 철거되었다.
- 오소리평벌 : 백산골 입구의 동쪽 산 능선.
- 옥녀동 : 함박굴 위쪽의 소류지 위쪽을 말한다. 이곳에는 좋은 샘이 있다.
- 옥녀동소류지 : 함박굴 위쪽 옥녀동에 있는 소류지.

- 원의(元蟻) : 1960년대부터 부른 의평리 2구 중 1구.
- 원전재 : 시영박골에서 연대 쪽으로 가는 길.
- 윗갸발진등 : 백산골과 운문이골 사이에 콧날처럼 내려온 산 능선.
- 윗골 : 갸발 최 남쪽 골짜기 상류의 광산 마을.
- 위뜸 : 갸발의 남쪽 마을.
- 은문이골 : 사자봉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입구인 사자봉 서쪽에 옛 절터가 있다.
- 음지뜸 : 버들골의 서쪽 마을.
- 음지뜸 : 여술의 북쪽 골짜기로 그들이 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의평(蟻坪) : 갸발의 한자식 표현이다. 여지도서에 김성우 장군 전투 때 적의 시체가 개미떼와 같은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의평1리 : 1반 갸발·새안동, 2·3·4·5·6·7반 갸발.
- 의평2리 : 1·2·3반 갸발.
- 의평3리 : 1반 새터, 2반 여술, 3반 버드골, 4반 가느실.
- 의평리(蟻坪里, 기암벌) : 의평리 갸발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작은가는골 : 큰가는골 서쪽의 작은 골짜기.
- 장승백이 : 아랫갸발 서쪽 길가에 장승이 있었다. 1950년대까지 있다가 없어졌다. 서낭덩이와 함께 있었는데 당시에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 장승백이들 : 갸발 서쪽에 있는 들.
- 절굴 : 장산리 장굴로 양수하는 양수장 뒤쪽에 있는 골짜기. 내현리와의 경계 지역이다.
- 절굴고개 : 가느실에서 아랫장굴 절굴로 넘어가는 고개.
- 직원사택 : 갸발 아래뜸 영보연탄공장 남쪽에 있는 집단 취락으로 영보탄광 근로자들이 살았다. 광산은 합리화 조치로 폐광되었으나 주민은 계속하여 거주한다.
- 진등날 : 가느실골과 배망골 사이에 있는 긴 능선으로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참나무복희 : 비적골의 남쪽 봉우리.
- 천수암 : 여술에 있는 절.
- 큰가는골 : TV 중계탑 서쪽 골짜기.
- 통목굴고개 : 가느실에서 아랫장굴 통목골로 넘어가는 고개.
- 평정(坪亭) : 의평리 2구 중 1구.
- 평정리(坪亭里) : 별정자의 한자식 표기. 현재는 청천저수지로 수몰됨

- 평정리(坪亭里, 벌정즈) : 의평리 벌정자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평정리(坪亭川) : 청라면 의평리 벌정자내(청천저수지 수몰지역) <1911, 朝鮮地誌資料>
- 평정보(坪亭汊) : 청라면 의평리 벌정자보 <1911, 朝鮮地誌資料>
- 함박굴 : 장승백이들 위쪽 골짜기.
- 호동(狐洞) : 여술의 한자식 표기.
- 호동(狐洞, 여슈울) : 의평리 여술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흥두깨날 : 은문이골과 사자골 사이에 있는 콧날 같은 능선.
- 흥반 : 의평리 새터에서 가느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산모퉁이를 말함.



의평리 전경(1993)



옛 광산취락(1993)

8. 장산리(長山里)

과거 보령현 청라면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상장동(上長洞), 하장동(下長洞), 서원리(書院里), 장내(牆內), 서산(西山), 북병리(伏兵里) 질리(埵里)를 병합하여 윗장굴(上長) 아랫장굴(下長)에서 長字를 따고 서산밑(西山)에서 山字를 따 장산리로 하였다.

- 가느실고개 : 아랫장굴 통목골에서 가느실로 넘어가는 고개.
- 가재바탕 : 잣나무골 서쪽 골짜기이다. 2가구가 거주한다.
- 감골 : 서산밑 마산골. 안에 돌감나무가 있어 감골이라고도 부른다.
- 개안들 : 과거 서원말 앞에 있던 들이다. 저수지 축조로 수몰되었다.
- 금점골 : 윗장굴 안에 있는 삼박골의 다른 이름. 일제시대에 금을 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내뚝 : 윗장굴에 있던 냇둑. 산지에서 공급된 토사가 하천 바닥에 퇴적되고 주변에 뚝을 쌓아 천정천화 되었다. 높이 2.5m 정도였으나 경지 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 늦점굴 : 안질굴의 중죽은굴 동쪽 골짜기이다. 과거에 늦쇠를 제련하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늦점굴재 : 안질굴의 늦점굴과 시궁굴의 함박굴을 잇는 고개.
- 느르실고개 : 장굴의 삼박굴에서 황룡리 느르실로 넘어가는 고개.
- 답안 : 서산밑 북쪽 마을. 능성 具萬元의 호자문이 있다. 질굴에 있었는데 근래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 당산 : 윗장굴 삼박굴과 붓당굴 사이의 능선. 과거에 당제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존하는 주민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 당산 : 서산밑 마을과 답안 마을 사이에 있는 높이 73.5m의 산이다. 청천저수지 축조로 대부분이 물로 둘러 싸여 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으로는 당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당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당안고개 : 장굴에서 당안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 더덕고랑 ; 윗장굴에서 당안고개로 오르는 골짜기.
- 독정고개 : 서산밑에서 죽정동 독쟁이로 넘어가는 고개.
- 동맥이재 : 질굴의 시산시굴 위쪽에서 오봉산 쪽으로 난 재. 능선을 따라 나 있다.
- 돼지굴 : 유두굴 북쪽의 골짜기.
- 두루굴 : 질굴 안쪽에 있는 서남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깊다.
- 두루굴재 : 질굴의 두루굴에서 주교면 신대리로 넘어가는 고개.
- 따박굴 : 아랫장굴 작은 따박굴 서쪽의 골짜기이다.
- 마룽산 : 질굴의 소도독굴과 지방굴 사이의 산봉우리이다.
- 마릿들 : 아랫장굴 밑에 있던 들.
- 마산골 : 서산밑에서 마산재로 넘어가는 골짜기.
- 마산재 : 장산리 서산밑에서 주교면 신대리로 넘어가는 고개. 과거에는 사람이 많이 다닌 고개이다. 고개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다.
- 매바위 : 아랫장굴 남동쪽 산의 북쪽 봉우리(150.8m)에 있는 큰 바위이다. 이곳에는 기우제를 지내고 개인적으로 산제도 지냈다고 한다. 마을 공동의 산제를 지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 매바위고랑 : 매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재바탕의 서쪽 골짜기이다.
- 매봉재 : 화암서원 앞에 있는 저수지로 둘러싸인 산이다. 장산리와 향천리의 경계가 된다.
- 명곡 이산보 신도비 : 아랫장굴 양지뜸 도로변에 있다. 1994년에 세워졌다.

- 바위배기논 : 방죽안논 동쪽에 있던 논이다. 이 논에는 두평 정도의 큰 바위가 있었는데 14~5년 전 경지정리 때 땅에 묻었다. 고인돌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바위백이 : 과거의 화암서원 옆에 큰 바위가 두개 있었는데, 그 근처를 부르는 이름이다. 저수지 물이 빠지면 나타난다.
- 방아뜰 : 아랫장굴 통목골 앞에 있는 내로 옛날 이곳에 수차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방아뜰들 : 아랫장굴 방아뜰 남쪽에 있는 들.
- 방죽안 : 윗장굴의 하천 안쪽에 있던 낮고 넓은 논이었다. 옛날에 이곳에 방죽이 있었는데 선비가 배를 띄우고 시조를 하며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 배암숙굴 : 아랫장굴 따박굴의 서쪽 골짜기이다.
- 백중들 : 서산밑 마을 앞에 있던 들이다. 송아들보다 아래쪽이다. 청천저수지 축조로 수몰되었다.
- 병거지재 : 현재의 화암서원에서 옥계리 원옥계로 가는 고개이다. 현재는 포장도로가 뚫려 있다. 옛날에는 상당히 우거져 있었다고 한다.
- 배망굴고랑 : 아랫장굴 통목골의 남쪽 골짜기.
- 북뱅이 : 당산 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청천저수지에 완전히 수몰되었고 뒷산만이 남아 있다. 수몰되기 전에는 광산 김 씨가 살았다고 한다. 여지도서에 김성우 장군의 군사들이 이곳에 숨어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북뱅이보 : 담안 마을 밑에 있던 보이다. 북뱅이에 물을 대었다.
- 북병보(伏兵汙) : 북뱅이보 <1911, 朝鮮地誌資料>
- 북병천(伏兵川) : 장산리 북뱅이내(청천저수지 수몰지역) <1911, 朝鮮地誌資料>
- 붓당골 : 윗장굴 양지뜸의 북쪽 고랑.
- 비석골 : 아랫장굴 통목골과 절골 사이에 있는 산에 서북쪽으로 열려진 골짜기. 이곳에는 용인 이 씨의 오랜 비석이 있어서 비석골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 사기장굴 : 안질굴에 있는 여러 골짜기 중의 하나. 서남쪽으로 향해 있다. 이곳에서 과거 사기그릇을 구웠다고 한다. 안에 작은 소류지가 있다.
- 사진굴 : 안질굴의 사기장굴에 붙어 있는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산정 : 윗장굴과 원자울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를 장굴에서 부르는 이름.
- 삼박굴 : 윗장굴의 북쪽 골짜기.
- 상장동(上長洞) : 장산리 위장굴 <1911, 朝鮮地誌資料>
- 새암골 : 담안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좋은 샘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댕이 : 중질굴의 소도독굴 앞 길가에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없어졌다.
- 서낭댕이 : 서산밑 마산재의 꼭대기에 있다. 쪽나무가 신목으로 있고 큰 돌무더기가 남아 있다.
- 서낭댕이 : 서산밑과 담안 사이의 당산 동북쪽 길가에 있었다. 청천저수지에 수몰되었다.
- 서낭댕이 : 아랫장굴의 잣나무굴 앞 고갯길 옆에 있던 서낭댕이이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으로 없어졌다.
- 서낭댕이 : 윗장굴의 삼박굴 꼭대기에 있다.
- 서산(西山) : 서산밑의 한자식 표기이다.
- 서산밑 : 현재 보령아산병원에서 옥계리 쪽으로 가는 첫 마을이다. 마을의 아랫부분은 청천 저수지의 건설로 수몰되었다.
- 서원말 : 질굴 남쪽의 옛 서원이 있던 마을이다. 현재의 서원 앞쪽인데 모두 수몰되었다.
- 서원보(書院湫) : 청라면 장산리 서원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서원안산 : 매봉재를 담안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
- 서원점(書院店) : 장산리 서원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선미들 : 담안 마을 앞에 있던 들이다. 청천저수지의 축조로 수몰되었다.
- 소도독굴 : 중질굴의 두루굴 맞은쪽에 있는, 오봉산 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깊어 옛날 소도독이 소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 소도독굴 : 아랫장굴의 배암숙굴 서쪽 골짜기.
- 솔미산 : 아랫장굴의 통목골고개 옆에 있는 산이다. 높이 68.1 m이다.
- 송아들 : 서산밑 앞에 있던 들이다. 청천저수지 축조로 수몰되었다.
- 수박재 : 서산밑 마을 북쪽에서 서산으로 올라가는 고개이다. 꼭대기가 평평하여 예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숙굴고랑 : 재실의 위쪽 골짜기. 비교적 깊은 골짜기이다.
- 시산시굴 : 중질굴의 동쪽 골짜기.
- 아랫장굴 : 장산리 장굴의 서쪽 마을.
- 아랫질굴 : 질굴의 입구에 있던 마을. 일부는 저수지 축조로 수몰되었다.
- 안산 : 담안 북쪽 마을에 있는 산. 담안과 새암골 사이에 있다.
- 안질굴 : 질굴의 가장 안쪽. 주포면으로 넘어가는 길재가 있다. 근래에 2차선 도로가 개통되었다.

- 양지뜸 : 아랫장굴의 북쪽 마을.
- 양지뜸 : 윗장굴의 북쪽 마을.
- 역말재 : 안질굴의 사기장굴에서 주포면 관산리 역말로 넘어가는 고개.
- 오봉산 : 장산리 질굴과 옥계리 시궁굴 사이에 있는 산이다. 봉우리가 5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옥계재 : 아랫장굴에서 옥계리로 넘어가는 고개. 포장되어 있다.
- 옥계재산 : 옥계리의 서쪽에 있는 산. 산의 서북쪽으로는 경사가 급하다. 옥계리와 경계가 된다.
- 옥제미덩쿨 : 질굴의 중질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한니시굴 북쪽에 있다.
- 용못고개 : 윗장굴의 재실 숙굴고랑에서 옥계리 용못으로 넘어가는 고개.
- 원자울고개 : 윗장굴에서 내현리 원자울로 넘어가는 고개.
- 윗장굴 : 장굴 골짜기의 상류 쪽으로 장굴의 동쪽 마을이다. 내현리와 황룡리 옥계리로 둘러싸여 있다.
- 유두굴 : 윗장굴의 남쪽 골짜기이다.
- 육굴 : 서산밑의 북쪽 골짜기. 꼭대기에는 작은 소류지가 있다.
- 육굴 : 아랫장굴 재실 서쪽의 골짜기.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두 골짜기가 있는데 모두 육굴이라 부른다.
- 은굴 : 서산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산재와 수박재 사이에 있다.
- 은굴 : 아랫장굴 육굴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위에는 조그만 소류지가 있다. 소류지 밑은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 음지뜸 : 아랫장굴의 남쪽 마을로 취락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음지뜸 : 위장굴의 남쪽으로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잣나무굴 : 장굴고개(회유고개)를 넘어 바로 남쪽 골짜기이다. 아래장굴에 속한다.
- 장곡(長谷) : 장산리 2구 중 1구.
- 장굴 : 장산리의 청천저수지 동쪽 마을. 화암서원에서부터 긴 골짜기로 이루어진 마을로, 골짜기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윗장굴, 아랫장굴로 나누어진다.
- 장내(塙內) : 담안의 한자식 표기. 장산리 2구 중의 1구.
- 장내리(塙內里, 담안) : 장산리 담안 <1911, 朝鮮地誌資料>
- 장산1리 : 1반 윗장굴, 2반 양지뜸, 3반 음지뜸.
- 장산2리 : 1반 서산밑, 2반 담안·즙뜸, 3반 서원말·홍골, 4반 질굴.
- 재실 : 윗장굴 입구. 즉, 삼박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주로 밭으로 개간되었다.

- 절골 : 절골 입구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류지가 있다.
- 절골 : 아랫장굴 통목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의 규모는 크나 취락은 없다.
- 절골앞들 : 절골 앞에 있는 들로, 청천저수지로 이어진다.
- 절터 : 서산밑 수박재의 중간쯤에 옛 절터가 있다.
- 점 : 담안 점들과 육굴 사이에 있던 옹기그릇을 굽던 곳.
- 점 : 점들과 육굴 사이에 있는 과거 옹기그릇을 굽던 곳이다.
- 점들 : 담안 당산 서쪽에 있는 들. 점들 서북쪽에 과거 옹기그릇을 굽던 점이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중죽은골 : 안질굴에서 북쪽으로 진당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 옛날 이곳에서 중이 죽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중질굴 : 절골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
- 죽은따박굴 : 아래장굴 은굴 서쪽의 작은 골짜기이다.
- 질곡리(埵谷里, 질골) : 장산리 질굴 <1911, 朝鮮地誌資料>
- 지방골 : 절골의 마룡산 서쪽에서 오봉산을 향하여 있는 골짜기. 상당히 깊다.
- 지을현(地乙峴) : 질재의 한자식 표기.
- 질곡(埵谷) : 질굴의 한자식 표기.
- 질굴 : 장산리 서쪽에서 진당산을 향한 긴 골짜기, 또한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칭하기도 한다. 능성구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현재는 몇 가구 되지 않는다.
- 질재 : 질굴에서 주포면 보령리로 넘어가는 고개. 과거에는 큰 고개였고, 특히 청라면 지역에서 보령중학교에 다닐 때 많이 이용하였다. 2차선으로 포장되었다.
- 채산 : 아랫장굴의 남동쪽 내현리 휘유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채씨네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높이 156.9 m이다.
- 천벽 : 북방이 북쪽에 있는 급경사지이다. 과거 화암천이 이곳으로 바짝 흘러 급경사를 이루었다.
- 통목골 : 아랫장굴 매바위고랑 서쪽에 있는 마을. 아랫장굴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통목골고개 : 아랫장굴 매바위고랑과 통목골 사이의 고개.
- 통목골포장 : 아랫장굴 통목골 위에 있는 소류지.
- 하장동(下長洞) : 장산리 아래장굴 <1911, 朝鮮地誌資料>
- 한니시굴 : 절골에서 절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이다.
- 헤리미재 : 중질굴에서 오봉산 정상 밑을 통하여 시궁굴로 가는 고개.
- 홍굴 : 화암서원 서쪽에 있는 마을. 소설가 이문구의 집필실이 있었다.

- 홍굴재 : 홍굴에서 옥계리 원옥계로 이어지는 고개.
- 화암(花岩) : 화암천과 질굴에서 흘러나오는 냇가 만나는 지점에 있던 바위이다.
- 화암서원(花岩書院) : 아랫질굴 동쪽에 있다. 청천저수지 수몰지에 있었는데 바로 위쪽으로 옮겼다. 광해 2년(1610)에 창립하여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명곡(鳴谷) 이산보(李山甫), 천휴당(天休堂) 이몽규(李夢奎)를 배향하였는데 숙종 15년(1674)에 사액(賜額)되었다. 후에 퇴우당(退憂堂) 이정암(李廷菴), 수암(垂庵) 구계우(具繼禹)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 화암천 : 화암서원 앞을 흐르는 냇로 화암(花岩)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대동여지도에도 화암천이라 나온다.



서산밑(2008)



장굴 이산보 신도비(2008)

9. 장현리(長峴里)

본래 보령군 오삼전면(五三田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삼거리(三巨里), 상장전리(上長田里), 명대리(鳴垜里), 위현리(渭峴里)와 하장전리(下長田里), 중리(中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전(長田)과 위현(渭峴)의 이름을 따서 장현리(長峴里)라 하였다.

- 가랑이 : 느락번덕지의 동쪽, 집 몇 가구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소도독굴의 밑이다.
- 가랑이재 : 울띠에서 삼거리로 이어지는 언덕.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다.
- 가로고개 : 금자동에서 화성면 화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가로질러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가소정(可笑亭) : 위장발 마을에 있는 작은 정자이다. 과거에는 초가, 함석으로 되었다가 최근 기와로 개축하였다. 안동 김 씨 김이철(金履澈, 1782-1755)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선비들이 놀던 정자이다. 벽에 많은 현판이 있다.
- 가재박굴 : 산수굴의 상류쪽 골짜기.
- 각시바위 : 금자폭포 밑, 서쪽으로 있는 바위.
- 고성미 : 장현(명대) 저수지 동쪽에 있는 마을. 불당골의 밑에 있다.
- 골말 : 윈터와 장골 사이의 마을.
- 골말 : 음나무골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 골봉 : 도장굴과 신산리 구렁목 사이의 봉우리. 164.1m이다.
- 골봉논 : 골봉 앞에 있는 논.
- 곶뚝 : 진동의 아래쪽에 동향으로 길게 늘어선 마을. 평지와 진동이 만나는 선을 따라 취락이 들어서 있다.
- 공동묘지 : 느락번덕지 밑에 있는 공동묘지이다.
- 구래 : 월정사 위에 있는 큰 구멍이 뚫린 바위로 대천천의 한 발원지이다. 바위가 영험하다고 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산신 기도를 드리는 곳이 기도 하다.
- 구막굴 : 독적굴 골짜기의 상류 쪽을 부르는 이름.
- 굴바위 : 구래의 다른 이름.
- 귀학정 : 점말 북쪽에 있었던 정자. 선비들이 글을 읽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현재의 양어장 바로 북쪽에 있었다. 귀학정사란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 금자동 : 장현리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로 천축암이 있다. 보령시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마을로 피난지로 알려져 있다. 많을 때는 10여 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오서산휴양림이 들어서고, 2가구만 거주한다. 금자라 형국이라 금자동이라고 부른다고 전한다.
- 금자박굴 : 큰고랑에서 남동쪽으로 난 작은 골.
- 금자폭포 : 월정사 밑에 있는 폭포.
- 노적봉 : 마쟁이 입구와 황룡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봉우리로, 노적가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누에머리 : 오서산의 능선이 누에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이곳에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있다.
- 느락번덕지 : 독적굴과 가랭이 사이의 평평한 땅.

- 다락굴고개 : 중고개 위쪽, 화성면 농암리 다락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당산 : 당살미 뒤에 있는 낮은 언덕으로, 높이가 132.7m이다.
- 당살미 : 윗장밭 북쪽 마을.
- 도깨비보 : 우령적골 앞에 있는 보. 상보와 물방아보 사이에 있다.
- 도장굴 : 장현리 최 남동 마을이다. 동으로 신산리, 남으로 음현리와 경계한다.
- 독적굴 : 새터 북쪽의 골짜기이다. 골이 깊지 않고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다.
- 두꺼비바위 : 우수고개 마을 이항규 씨 집 문 앞에 있는 바위이다. 원래는 집 뒤에 하나가 더 있었으나 없어졌다고 한다.
- 동구봉 : 서원말 남쪽의 음현리와 경계가 되는 봉우리로 222.0m이다.
- 뒤통굴 : 도장굴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 따개샘 : 금자동 큰내의 발원지 위에 있는 샘. 뚜껑을 돌로 만들어 덮어 생겨진 이름이라고 한다.
- 마랫들 : 명대 저수지에서 명대 계곡으로 오르는 길 왼쪽에 있는 들.
- 마랫들 : 명대 저수지 밑에 있는 들.
- 매봉재 : 우수고개 마을의 동쪽에 있는 봉우리.
- 면산 : 독적굴 서남쪽의 장현 쪽 산. 面 소유의 산이었기 때문에 면산이란 이름이 붙었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 소유이다.
- 명대(鳴垜) : 울띠의 한자식 표기이다. 장현리 2구 중 1구.
- 명대(鳴帶) : 울띠의 한자식 표기이다.
- 명대계곡 : 금자동 밑 계곡으로 최근 휴양지로 개발하였다.
- 명대저수지 : 명대계곡 상류 금자동 밑에 있는 작은 저수지이다. 1995년 8월 25일 홍수로 붕괴되었다. 울띠에 있는 장현 저수지를 말하기도 한다.
- 무덤재 : 금자동에서 오서산을 가로질러 홍성군 장곡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문안고랑 : 명대저수지 바로 위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물방아보 : 도깨비보 위에 있는 보.
- 번들바위 : 매봉재 끝에 있는 큰 바위.
- 벌뜸 : 우수고개 마을의 동쪽에 있는 들. 논과 밭으로 되어 있다.
- 벼룩구렁이 : 금자동에서 오서산 상봉 밑을 부르는 이름.
- 보래목굴 : 가랭이재와 보래목재 사이의 골짜기.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 보래목재 : 보래목굴과 울띠 사이의 고개.
- 불당굴 : 장현(명대) 저수지 상부 동쪽 골짜기.

- 사포재 : 새터와 중고개 사이의 밭이 있고 집이 한 채 있는 곳을 말한다.
- 산수굴 : 금자박굴 동쪽 골짜기.
- 산초나무골 : 육소나무 서쪽에 있는 골짜기. 산초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삼거리 : 통샘골 위쪽 마을로 자동차가 등장하기 이전에 청양군 화성면에서 우수고개-울따-넙티-청소면 성연리로 이어지는 길에서 장밭으로 이어지는 삼거리이다. 옛날에는 교통의 요지여서 군수 朴鴻陽(1899.2.11~1900.6.18 보령군수)의 비가 있었다. 교통로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 삼거리점(三巨里店) : 장현리 삼거리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상보 : 노적봉 바로 앞에 있는 보.
- 상봉 : 금자동에서 오서산 꼭대기를 부르는 이름.
- 상장리(上長里) : 윗장밭의 한자식 표기.
- 상장전(上長田) : 윗장밭의 한자 표기.
- 새논 : 시영재 밑에 있는 논으로, 밭이었다가 요즈음 모두 논으로 개간하였다.
- 새논들 : 뒤통굴 위에 있는 들. 새로 만든 논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새터 : 삼거리 서쪽 마을로 황릉리와 경계를 이룬다.
- 새터 : 우수고개 마을 위쪽에 있는 마을. 서낭댕이의 바로 밑 마을이다.
- 서낭댕이고개 : 우수고개 마을과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사이의 고개이다. 주민들이 부를 때는 서낭댕이고개라고 부르고, 외지 사람들은 우수고개라고 부른다. 근대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큰 길이었다.
- 석봉 : 옛 장현초등학교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
- 선녀봉 : 금자동 북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 설원밭 : 아랫장밭 남동쪽 마을.
- 소도독굴 : 가랭이의 북쪽 골짜기로, 골짜기가 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솟점 : 옛 장현국민학교와 당살미 사이에 있는 마을로, 옛날 쇠를 굽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
- 시영재 : 옛 장현초등학교 밑에서 신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수군절도사가 청양에서 오천으로 부임할 때 쉬어가다 윗장밭을 보고 여기가 구읍내(舊邑內)냐고 물었다는 전설이 있다. 수군절도사가 쉬어가서 시영재라고 부른다고 한다.
- 신랑바위 : 금자폭포 밑, 동쪽에 있는 바위.
- 신석봉효자문(申錫鵬孝子門) : 아랫장밭 가운데에 있는 효자 신석봉의 효자문이다.
- 신평리(新坪里) : 장현리 ‘새밭’ <1911, 朝鮮地誌資料>

- 신평점(新坪店,시말주막) : 장현리 새말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아랫장밭 : 장밭의 아래쪽 마을이다. 약현의 바로 윗동네를 말한다.
- 아수개넷갈 : 황룡리와 경계가 되는 넷물이다.
- 안산 : 장현(명대) 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 청양군 화성면과 경계를 이룬다.
- 앞산 : 금자동 앞으로 보이는 봉우리로, 월정사 계곡 남쪽에 있는 봉우리. 염라대왕이라고도 한다.
- 약현 : 장현리의 서남쪽 마을. 울띠 쪽으로 난 포장도로의 입구 마을이다. 옛날 평산 신 씨 할아버지가 약을 지어 팔았기 때문에 약현으로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 약현들 : 아랫장밭 밑에 있는 들.
- 약현보 : 장현교 밑의 큰내 쪽에 있는 보. 약현들에 물을 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옴팡골 : 금자동 큰내 남쪽의 골짜기이다.
- 용허리고개 : 금자동에서 오서산 정상으로 오르는 고개이다.
- 우렁적골 : 마쟁이 입구의 노적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으로 되어 있다.
- 우수고개 : 우수고개 마을과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와의 경계가 되는 고개.
- 우수고개 : 장현(명대) 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 우수현(禹水峴) : 우수고개의 한자식 표현.(湖西邑誌)
- 운대(雲帶) : 울띠의 한자 표기.
- 울띠 : 장현저수지(명대저수지) 서남쪽 마을이다. 과거에는 누구나 울띠라고 불렀으나 요즘은 명대(鳴埜)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 원밭재 : 월정사 남쪽에 있는 고개로 큰쟁골과 통한다. 이곳에 밭이 있는데 옛날 참외를 심고 원두막을 지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원터 : 우수고개 마을의 아래쪽, 울띠의 북쪽에 있다. 禹水峴院 자리로 원터가든이 있었다.
- 월정사 : 금자동 서쪽에 있는 절이다. 원래는 월정사 자리 앞에 사자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화재로 없어지고 1913년에 김동초가 월정사를 세웠다. 절의 준공식에 당시 보령군수인 김동진이 참석하여 시를 지었고 현재도 벽에 걸려 있다.
- 위현(渭峴) : 우수고개의 한자식 표기.
- 윗장밭 : 장밭의 윗동네이다. 장밭 새마을 회관이 있는 마을이다.
- 육소나무 : 우수고개 마을에 있는 6가지로 된 소나무이다. 나무가 크고 기이하며 아름다워 보호되고 있다.

- 읍나무골 : 장현(명대) 저수지의 북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고랑 : 금자동의 작은내가 있는 골짜기.
- 작은내 : 금자동 큰 내 남쪽의 내.
- 작은내 : 장현교에서 신산리 쪽으로 난 내이다. 울띠 쪽에서 내려오는 내보다 작아서 붙인 이름이다.
- 작은장골 : 골말의 동쪽 골짜기. 우수고개 마을의 북쪽에 있다.
- 장가바위 : 금자동 작은고랑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로, 밑에서 돌을 던져 올라왔으면 총각이 장가든다는 전설이 있다. 줌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장가 가기를 기원하며 돌을 던졌다고 한다.
- 장고개 : 터골에서 신산리 윗건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5일 정기 시장을 보러 넘어 다니던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장고랑 : 장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장군바위 : 큰고랑에 있는 바위. 옛날 토정 선생이 공부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 장밭 : 장현리의 남쪽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이다. 과거에는 밭이 대부분이었으나 명대저수지 축조 이후 논으로 개간되었다. 명대 쪽에서 내려오는 큰 내와 황룡리와와의 경계가 되는 아수개 냇가로 둘러싸인 평지로, 예부터 사대부들이 세거하였으며 은행나무가 특히 많다.
- 장승개 : 육소나무 위에 있다. 일제시대까지 장승이 4~5개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빌던 곳이다.
- 장승개밭 : 장승이 서 있었던 긴 밭이다.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아계 이산해의 아들이 충청감사가 되어 나가는데, 아계의 동생인 東溪가 이 밭에서 밭을 매고 있었다. 조카인 감사가 이것을 보고 가마에서 내려 인사하니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동계 집안을 알아주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조카인 충청감사 덕에 東溪는 홍산 현감을 지냈다고 한다.
- 장전(長田) : 장산리 2구 중의 1구. 정밭의 한자 표기.
- 장현1리 : 1반 야현, 2반 아랫장밭, 3반 곱뜸, 4반 술점밀, 5반 술안말 · 산수골, 6반 삼거리 · 독죽골, 7반 삼거리.
- 장현2리 : 1·2반 울띠, 3반 터골, 4반 금자동.
- 장현교 : 큰내와 작은내가 합하여지는 곳에 있는 다리.
- 장현초등학교 : 장현리 윗장밭 신산리와의 접경 지역에 있던 초등학교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되었다.

- 장현저수지 : 울띠에 있는 저수지로 1961년에 축조하였으며 제방이 L자 형으로 되어 있다.
- 잣말 : 당살미 서쪽 마을로 황룡리와 경계를 이룬다.
- 점말 : 우수고개에서 금자동으로 올라가는 계곡에 있는 마을. 옛날에 그릇을 굽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
- 중고개 : 다락굴 고개의 중간쯤을 말한다.
- 중보 : 새논들에 있는 보.
- 진등 : 울띠 쪽에서 약현 쪽으로 내려온, 논으로 개간된 낮고 긴 능선.
- 질구데기 : 울띠 바로 북쪽의 골짜기.
- 천축암 : 금자동에 있는 절. 옛날에는 이곳에 大成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1949년에 경기도가 고향인 瑞雲 金圭煥이 이곳에 와서 절 이름을 천축암(天竺庵)이라고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체빈골 : 장현(명대) 저수지 제방 동쪽 골짜기. 초분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보인다.
- 큰고랑 : 설원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이 커서 붙은 이름이다.
- 큰고랑 : 큰내가 있는 고랑.
- 큰내 : 금자동 천축암 서쪽에 있는 내.
- 큰내 : 장현교에서 명대 쪽으로 난 내. 신산 쪽 내보다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장골 : 작은 장골의 동쪽 골짜기. 우수고개 마을의 북쪽에 있다.
- 터골 : 장현저수지 제방 남동쪽 마을이다. 신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 통샘골 : 삼거리와 잣말 사이에 있는 마을. 좋은 샘이 있고 과거에 산신제 지낼 때는 반드시 이 샘물을 사용하였다.
- 하장리(下長里) : 아랫장밭의 한자 표기.
- 하장전리(下長田里) : 아랫장밭의 한자 표기.



오서산(2008)



천축암(2008)

10. 향천리(香泉里)

본래 보령군 청라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임천동(林泉洞) 분향리(芬香里), 창대리(蒼岱里), 증성리(甌城里), 만천리(晩川里), 평정리(坪亭里) 일부를 병합하여 분향(芬香)과 임천(林泉)의 이름을 따서 향천리(香泉里)라 하였다.

- 가는골 : 임척굴의 불무굴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가는골 : 만천 위쪽의 골짜기로 가느실과 통한다.
- 골고개 : 가느실과 불무굴 사이의 고개.
- 구수굴 : 소두산 북쪽 임척굴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굴고개 : 향천리와 화산동 사이의 고개.
- 기호데기들 : 임척굴 서북쪽에 있는 들.
- 피깎봉 : 유봉의 6개 봉우리 중 가운데에 있는 뽕쪽한 봉우리이다.
- 달랑고개 : 창터와 화산동 안터를 연결하는 고개.
- 당산 : 분향이와 시루생이 사이에 있는 산, 높이 119.1m이고 테메식 石城이 있다. 이곳의 꼭대기에는 초가 1칸의 당집이 있었고 당집 안에 2개의 쇠말이 있었다. 1962년 시루생이 마을이 수몰될 때까지 산제를 지냈다. 제일은 정월 보름이었다.
- 덜너머 : 불무굴 뒤쪽 산 꼭대기의 너머 장산리 땅이다.
- 도치정굴 : 임척굴 가는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짜기 밑을 통하여 작은 뱀재고개로 넘어간다.
- 뒷들 : 시루생이 남쪽에 있는 들.
- 만국 : 불무굴 서쪽 장산리 북방이와 연결되는 마을로, 15호 정도가 살았으나 모두 수몰되었다.
- 만척굴 : 만국 위쪽에 있는 골짜기.
- 만척굴고개 : 만국에서 장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 만천 : 불무굴 입구 마을로, 수몰되기 전에는 3가구가 있었다. 청천저수지 축조로 모두 수몰되었다.
- 만천리(晩川里) : 만천의 한자 표기.
- 말머루 : 향천리의 동북쪽 36번 국도와 접하는 곳이다. 의평리와의 경계가 된다.
- 말머루들 : 말머루 앞에 있던 들로, 청천저수지 건설로 모두 수몰되었다.
- 말머루산 : 말머루 동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20.1m 이다.

- 말미산 : 시루생이 서쪽에 있는 산으로 죽정동, 화산동과의 경계가 된다. 청천저수지와 접하는 부분은 경사가 급하다.
- 목탁봉 : 통봉의 다른 이름.
- 반생이굴 : 작은뱀재와 큰뱀재 사이의 능선을 말함.
- 방죽굴 : 청룡 서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 번덕지 : 분향이 마을 서북쪽의 평평한 땅.
- 범바위 : 달랑고개 남쪽 산허리에 있는 바위로, 밑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화산동 큰골 사람들이 달구경을 하였다.
- 분투굴 : 분향이 위뜸 동쪽의 작은 골짜기.
- 분향(芬香) : 분향이의 한자식 표기.
- 분향뒤 : 분향이 마을 뒤쪽의 산기슭, 산봉우리를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
- 분향리(芬香里) : 분향이의 한자 표기.
- 분향이 : 향천리의 동쪽 마을. 예로부터 벼루를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였다. 근래에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분향재 : 분향이 동쪽의 성주산 능선을 말함.
- 불무굴 : 임척굴의 유봉굴과 가는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불무굴 : 향천리 내건너의 최 북단에 있던 마을. 주변에 있던 만국, 만천 등의 마을은 모두 수몰되고 불무굴 일부만 남았으나 현재 주민의 거주는 없다. 수몰되기 전에는 10여 호가 살았다.
- 붓당굴 : 불무굴 뒤쪽에 있는 골짜기.
- 빈대절터 : 임척굴의 새암굴 제일 깊은 골짜기. 산 중턱에 있던 절로 빈대 때문에 망했다고 하여 빈대절터라고 부른다고 한다.
- 뽕쪽산 : 임척굴과 화산동 사이에 있는 뽕쪽한 산으로, 화산동에서는 소두산으로 부른다.
- 사구정굴 : 분향이 마을 북동쪽 골짜기. 밭으로 이용되던 넓은 평지와 임야로 되어 있던 넓은 완사면이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옛날에 사기를 구운 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 사구정굴번덕지 : 사구정굴 동쪽의 산기슭으로 완만한 경사지로 되어 있다.
- 상정밭 : 분향이와 시루생이 사이의 당산 동쪽 산기슭에 있는 밭.
- 상정밭앞들 : 분향이 입구 상정밭 앞에 있는 들.
- 새암굴 : 임척굴에서 남쪽 즉, 뽕쪽산(소두산) 뒤쪽으로 난 골짜기.

- 서낭댕이 : 말머루 앞에 있었다. 신목으로 위해지던 큰 느릅나무가 지금도 남아 있다. 저수지 축조로 주변에 큰 길이 나면서 없어졌다.
- 서부들 : 시루생이 앞쪽에 있던 들.
- 서지골 : 임척굴 남쪽 성주산록의 골짜기. 유봉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성적골 : 새암굴 안쪽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
- 소잡은고랑 : 골고래로 오르는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일제시대에 소 잡는 것을 금지하자 이곳에서 몰래 잡았다고 한다. 매우 음침한 골짜기이다.
- 수리재 : 임척굴과 화산동 독저굴을 이어주는 고개.
- 시루생이 : 향천리의 서쪽 마을이다. 원래는 마을의 중심이 저수지 속에 있었는데 청천저수지의 축조로 수몰되어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일부는 수몰선 위로 가옥을 옮겨 지금의 시루생이가 되었다.
수몰되기 전에는 50여 호가 살았다. 시루생이라는 이름은 당산에 있는 테피식 산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 시우나무들 : 분향이 마을 서쪽에 있는 들. 시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유나무를 보령 지방에서는 시우나무라고 부른다.
- 앞산 : 달랑고개 남쪽에 있는 산으로, 창터의 앞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야동(冶洞) : 청라면 향천리 불무굴. 청천저수지로 수몰됨 <1911, 朝鮮地誌資料>
- 양지뜸 : 사구정굴의 북쪽 산기슭으로, 주민의 거주는 없다.
- 여술재 : 사구정굴에서 여술로 넘는 고개. 여술 쪽에서는 분향이재라고 부른다.
- 용이마 : 새암굴 입구에 있는 산 능선.
- 용이마들 : 임척굴 남쪽 새암굴 입구에 있는 들.
- 원뚝들 : 분향이 앞에 있던 들. 청천저수지 속에 수몰되었다. 분향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천정천이 되어 원뚝이라고 불렸고 그 주변에 있는 들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원전재 : 여술에서 원정굴 위쪽을 통하여 분향으로 이어지는 고개.
- 원정굴 : 사구정굴의 동쪽 골짜기 상류쪽을 부르는 이름. 원정굴 위쪽에 절이 있었는데 군부대의 주둔으로 없어졌다.
- 위뜸 : 분향이의 윗마을(동쪽 마을)
- 윗청재 : 분향이에서 임척굴로 넘어가는 고개. 장고개 동쪽에 있다.
- 유봉 : 성주산 능선에서 분향이와 임척굴 사이로 내려오는 산 줄기에 있는 봉우리이다. 젓무덤처럼 생겼다. 이곳에는 강도가 강한 청석(세일)이 산출되어 다듬잇돌로 이용되었는데, 이 돌을 유봉돌이라고도 한다.

봉우리가 6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유봉골 : 서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음산골 : 창터의 동남쪽 골짜기로, 분향이의 방죽골과 연결된다.
- 임척골 : 청라면 의평리의 가장 서남쪽 마을로, 창터의 남쪽에 있다. 이 마을에는 과거에 물이 상당히 귀하였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광산이 폐광되자, 이곳에 있는 임천항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많은 물이 언제나 흐르게 되었다.
- 임척골서낭댕이 : 모두 3개가 있다. 공동묘지 넘어가는 곳. 즉, 장고개 위에 있었다. 신수는 벗나무다. 또 한 곳은 큰뱀재와 작은뱀재 갈라지는 곳에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용이마에 있었는데 신수는 팽나무로, 현재도 남아 있다.
- 임척골은행나무 : 임척골 동네 가운데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둘레가 장정 3~4 아람이나 되고 은행이 많이 열린다. 음력 정월 초사흘과 칠월 칠석에 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은행나무제만 지내고 산제는 지내지 않는다.
- 임천동(林泉洞) : 임척골의 한자식 표기.
- 장고개 : 분향이에서 임척골로 이어지는 고개로 수리재를 통하여 대천 화산동으로 이어져 대천장에 다니던 길이다.
- 정문고랑 : 청천저수지 북쪽 만천과 가느실 사이의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고령신 씨네 정문이 있었는데 수몰되어 저수지 동쪽으로 옮겼다.
- 정자나무 : 현재 수몰된 옛 시루생이에 있던 정자나무이다. 장정 다섯 아람 정도 되었으며 베어진 그루터기에 상을 놓고 장정 4명이 밥을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월 보름 날 산제를 지낸 후 제를 지냈다. 1962년 수몰되어 마을에서 상인에게 팔았다. 이 정자나무 값으로 시루생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워 현재도 전해진다.
- 종산 : 진개울과 시루생이 사이에 있는 산으로 한양 조 씨 판관공파의 종산이라서 부르는 이름이다.
- 종산고개 : 시루생이 주산골에서 굴고개로 넘어가는 고개.
- 주라들 : 창터 동남쪽에 있는 들.
- 주산골 : 시루생이 서쪽의 골짜기.
- 주수남티 : 분향이 위뜸의 아래쪽(서쪽)에 있는 솔밭. 소나무가 줄로 서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 중미들 : 시루생이 서쪽에 있는 들.
- 작은뱀재 : 임척골과 성주면 성주리 뱀재골과 통하는 재.

- 증성리(甞城里) : 시루생이의 한자식 표기.
- 증성포(甞城湫) : 향천리 시루생이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진개울 : 말미산과 국도 36호선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청라양조장이 있었다.
- 진담불 : 창터 안에 있는 지명. 담불은 옛 쓰레기장이다.
- 참새골 : 임척굴 도치정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창대(倉垔) : 창터의 한자 표기.
- 창터 : 시루생이 남쪽에 있는 마을. 청천저수지 축조 이전에는 시루생이와 분리된 마을이었으나 시루생이 마을이 수몰선 위로 올라온 뒤에는 한 마을처럼 되었다. 옛날에 큰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창터라고 부른다고 한다.
- 창터고개 : 분향이에서 창터로 넘어가는 고개.
- 청룡 : 방죽굴과 분향이 사이에 있는 산줄기로 분향이 마을 좌측에 내밀어 있어 좌청룡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서는 용의이빨이라고도 한다.
- 큰뱀재 : 분향이에서 성주면 성주리 뱀재골로 넘어가는 고개.
- 토막굴 : 임척굴 뽕쪽산 밑으로 난 골짜기.
- 통봉 : 분향이 마을 가운데로 내려온 산줄기의 끝으로, 묘처럼 생긴 작은 봉우리가 있었다. 군부대에서 흙을 퍼가는 바람에 없어졌다.
- 포수골 : 창터 서쪽 골짜기로, 화산동 안터골로 이어진다.
- 함박굴 : 청천저수지 북쪽 정문고랑 서쪽의 골짜기.
- 향천1리 : 1반 분향이, 2반 임척골.
- 향천2리 : 1반 시루생이, 2반 창터, 3반 주산골.
- 화현(花峴) : 굴고개의 한자식 표기.



시루생이 거주민 유허비(1995)



분향이 마을(2008)

11. 황룡리(黃龍里)

본래 보령군 오삼전면(吾三田面)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황곡리(黃谷里), 사가리(四佳里), 상룡리(上龍里), 석우동(石隅洞), 광암리(廣岩里), 송당리(松堂里)와 하룡리(下龍里), 길현리(吉峴里), 중리(中里), 하장전리(下長田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황곡(黃谷)과 상하룡(上下龍)의 이름을 따서 황룡리(黃龍里)라 하였다.

- 고랑밭 : 소뎡이 아래뜰과 윗마을 사이에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공바탕 : 중리 북쪽의 언덕으로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나무꾼들이 공을 치고 놀았던 곳이다.
- 광암(廣岩) : 속벌의 한자식 이름.
- 광치(廣峙, 녁티) : 녁티 <1911, 朝鮮地誌資料>
- 광현(廣峴) : 녁티의 한자식 표기.
- 쾌등형국 : 오서산의 황룡리 쪽 꼭대기. 밑에 한산 이 씨 명곡 이산보의 후손이 문헌 묘가 있는데, 등을 걸어 놓은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막굴말랭이 : 쾌등형국 위쪽 봉우리.
- 김사날 : 병목안의 서쪽 비탈로 겨울에 김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낚은터 : 사거리들 맞은쪽. 즉, 도둑바위보 위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 황룡가든이 들어서 있다. 과거에 몇 채의 집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외지에서 주민이 들어와 식당, 양어장, 축산을 한다. ‘낚은터’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하여 ‘새터’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 낚은터고개 : 느르실에서 낚은터로 넘어가는 고개.
- 녁티 : 돌모루에서 청소 성연리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는 해발 180m 정도이다.
- 녁티굴 : 돌모루에서 녁티로 올라가는 골짜기. 녁티소류지가 있다.
- 노랑가마골 : 병목안의 동쪽 골짜기. 장현리와의 경계이다.
- 노적봉 : 상보 바로 옆에 있는 봉우리. 노적가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농박굴 : 녁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누루실 : 黃谷(느르실)을 혼동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느르실 : 황룡리 남쪽의 골짜기. 임진왜란 때 原州 元 씨가 낙향하여 자리 잡은 곳으로 원주 원 씨의 재실이 있다.
- 다른고개 ; 소당구레에서 중들로 넘어가는 고개. 붉은뎡이 북쪽에 있다.

- 당머루 : 중리 밑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황룡리의 동쪽 경계에 있는 들이다.
- 당안고개 : 느르실에서 내현리 당안으로 넘어가는 고개. 확장하여 시멘트로 포장되었다.
- 도둑바위 : 도둑바위보 위에 있는 큰 바위. 옛날 도둑이 들끓었다고 한다.
- 도둑바위보 : 도둑바위 밑에 있는 보.
- 동구레박굴 : 넙티골 서쪽의 골짜기로 사까박굴 북쪽에 있다.
- 돛대바위 : 배바위 동쪽으로 약 50여 m 떨어진 바위이다. 길이 4m, 폭 1.5m 정도 되는 긴 돌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사거리에 평산 신 씨네 큰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스님이 시주를 청하자 거절하였다. 다음해에도 또 시주를 청했으나 거절하자 스님이 혼잣말로, ‘저 배바위가 짐을 싣고 들어왔으니 돛대바위를 자빠뜨려야만 나가지 못하므로 돛대바위를 뉘어야 할 텐데’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신씨는 돛대바위를 정으로 쪼아 자빠뜨렸다. 그 뒤로 신씨는 망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사거리에 살던 평산 신 씨네 큰 부잣집 뒤꼍에서 술이 조금씩 나왔는데 술맛이 하도 좋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손님치레에 부인이 하도 어려워서 어느 스님한테 시주를 듬뿍 주고 손님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때 스님은 돛대바위를 자빠뜨리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돛대바위를 넘어뜨렸더니 술도 나오지 않았고 집안이 망하여 손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 등잔걸이 : 황룡리 쪽 오서산 패등형국의 순수 우리말 이름.
- 마장고개 : 장현리에서 내현리로 넘어가는 고개.
- 마쟁이골 : 장현에서 청라 내현리 쪽으로 난 골짜기.
- 막내들 : 옥계초등학교의 동쪽 아랫용머리의 서쪽에 있는 들이다.
- 막내들방죽 : 막내들에 있는 관개용 방죽.
- 말무덤 : 무쇠점들에 있던 무덤 형태의 지형. 말을 묻은 무덤이라는 전설이 있다.
- 무쇠점들 : 중들을 과거에 부르던 이름.
- 박설미 : 설미들의 바깥쪽 들.
- 발재 : 새안티에서 청소로 넘어가는 산봉우리.
- 배바위 : 사거리들에 있는 배처럼 생긴 바위이다. 눈 안에 있는데 납작한 돌을 킴돌로 받쳐 놓아 눈에 떠 있는 모습이다. 꼭 배같이 보인다. 고인돌인데 석질로 보아 사거리들 앞쪽의 산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 번덕지 : 불량골 밑에 있는 완경사지. 일종의 선상지이다.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로

번덕지라고 한다. 과거에는 모두 밭이었으나 황룡저수지 축조로 논으로 개간되었다.

- 벌정자 : 느르실 입구의 남서쪽으로 향한 골짜기.
- 병목안 : 황룡저수지 안쪽을 일컫는 말. 좁은 골짜기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 부랑골 : 황룡리저수지 밑의 골짜기. 절의 식량을 대던 논이라는 뜻으로 ‘불랑골’로 불렸다가 부랑골로 변하였다고 한다.
- 붉은댕이 : 사거리 북쪽에 있는 언덕. 붉은 황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가리(四佳里) : 사거리의 한자식 표기.
- 사가보(四佳泫) : 황룡리 사거리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사거리 : 소땡이와 윗용머리 사이에 있는 마을. 오서산에서 내려오는 낮은 구릉이 끝나는 곳이다. 길이 합쳐지는 네거리이기 때문에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은 ‘사’字를 짧게 발음한다.
- 사거리들 : 사거리 앞에 있는 들이다. 모두 논이다.
- 사까바골 : 넙티골 서쪽의 골짜기.
- 사당집뒤 : 소땡이 아랫동네 북쪽에 있는 조그만 산. 소땡이에 경주 김 씨네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집 뒤라는 의미이다.
- 사지목 : 느르실 입구의 노적봉 뒤 목쟁이. 뱀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지목들 : 도둑바위보 아래쪽 논.
- 산숙골 : 느르실의 당안고개 북쪽 골짜기. 원주 원 씨의 산소가 있는 골이라는 의미로 산소골이라고 불리다가 산숙골이 되었다고 한다.
- 삼태미보 : 속벌 농협 창고 앞에 있는 보.
- 상룡리(上龍里) : 황룡리 위용머리 <1911, 朝鮮地誌資料>
- 상보 : 노적봉 앞에 있는 보.
- 상용두(上龍頭) : 윗용머리의 한자식 표기.
- 새안루 : 새안티로 올라가는 골짜기.
- 새안티 : 넙티골과 부랑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재로 올라가는 고개.
- 새암고개 : 중리에서 장현리 새터 쪽으로 가는 고개.
- 새암골 : 돌모루 북쪽의 골짜기. 큰고랑의 동쪽이다.
- 새절골 : 병목안의 서쪽 골짜기. 김나날의 북쪽.
- 새초골 : 넙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정자나무골 북쪽에 있다.
- 석우(石隅) : 돌모루의 한자식 표기.

- 설미들 : 속벌 농협창고 앞에 있는 들.
- 섯밭산 : 돌모루 북쪽의 산모퉁이를 말함.
- 소당구레 : 소댕이 앞의 골짜기 논.
- 소댕이 : 속벌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아랫동네와 윗동네로 나뉜다.
- 속벌 : 소댕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들 가운데에 있다. 별판의 안에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것 같다.
- 속벌 : 속벌 마을 근처에 있는 들.
- 송날골 : 느르실 아랫말의 서쪽 골짜기.
- 송당리(松堂里) : 소댕이의 한자식 표기.
- 송중(松中) : 황룡리 2구 중의 1구.
- 수리치골 : 병목안의 서쪽 골짜기. 수리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시양굴 : 느르실 입구 용못 위에 있는 골짜기.
- 아랫동네 : 소댕이의 아래뜸.
- 아랫마쟁이 : 마쟁이의 아래쪽(북쪽)
- 아랫말 : 느르실의 서북쪽 마을.
- 아랫용머리 : 용머리의 아래쪽 마을이다.
- 안산 : 소댕이 서쪽의 산. 지랑고개의 남쪽.
- 안설미 : 설미들의 안쪽 들(넷가쪽). 설미들 안에 있는 넷물로 경계한다.
- 어귀 : 느르실의 입구를 보통 어귀라고 부른다
- 용두(龍頭) : 황룡리 2구 중 1구. 용머리의 한자 표기.
- 용두보(龍頭岫) : 황룡리 용머리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용머리 : 황룡리의 서남쪽을 통칭하여 용머리라고 한다. 길마재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부랑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 용문너덜 : 넙티의 동쪽에 있는 돌너덜. 청소면과의 접경 지역이다.
- 용천쟁이골 : 새절골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 원두막골 : 별정자 동쪽 골짜기이다.
- 원밭재 : 밭재 위쪽의 봉우리.
- 윗동네 : 소댕이의 위뜸.
- 윗마쟁이 : 마쟁이의 위쪽(남쪽).
- 윗말 : 느르실의 위쪽(동남쪽) 마을. 如在閣이라는 原州 元 씨의 재실이 있다.
- 윗용머리 : 용머리의 위쪽 마을.

- 이동죽골 : 황룡저수지 제방의 바로 아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이수개넛갈 : 황룡리와 장현리 사이를 흐르는 내.
- 장굴고개 : 통목골에서 장산리 장굴로 넘어가는 고개.
- 장승백이고개 : 소땡이 위쪽의 고개.
- 장승백이들 : 말무덤 위쪽 들.
- 잣들 : 길마재 동쪽의 들. 낮고 긴 언덕으로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돌모루 위쪽에 있는 잣들보에서 물을 대었다.
- 잣들방죽 : 잣들에 있는 방죽.
- 잣말 : 돌모루와 길마재골 사이에 있는 밭으로 개간된 곳.
- 절터굴 : 황룡저수지 밑의 골짜기(부랑골)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이곳에 옛날 큰 절이 있었는데 절터 뒤 바위절벽의 구멍에서 쌀이 나왔다고 한다. 하루에 두 숟갈 정도 떨어졌는데, 어느 스님이 구멍이 적어 쌀이 적게 나온다고 구멍을 키우자 그나마 쌀은 나오지 않고 빈대만 나와서 절이 망했다고 한다.
- 정자나무뒷굴 : 넙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농박굴 북쪽에 있다.
- 중들 : 돌모루 동쪽에 있는 들.
- 중땡 : 소땡이 동쪽 마을로 장현리와 경계를 이룬다.
- 중리(中里) : 중땡의 한자식 표기. 요즈음은 중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다.
- 중보 : 납은터 위쪽에 있는 보.
- 지랑고개 : 소땡이 윗동네에서 중들로 넘어가는 고개.
- 채산 : 느르실 입구의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는 102 m이다.
- 큰고랑 : 돌모루 서북쪽 골짜기.
- 큰너덜 : 넙티골 동쪽에 있는 돌너덜. 새초골 북쪽에 있다.
- 통목골 : 원두막골 동쪽 골짜기.
- 하용두(下龍頭) : 아랫용머리의 한자식 표기
- 할매고개 : 중리에서 소땡이 쪽으로 난 고개. 약 30m 구간에 비탈이 심해 할매처럼 구부리고 다녀야 한다는 데서 생긴 이름.
- 홋짜골 : 박설미 위쪽 골짜기.
- 홍골 : 황룡저수지 바로 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황곡(黃谷) : 느르실의 한자식 표기이다.
- 황룡1리 : 1반 느르실, 2반 아랫용머리, 3반 윗용머리, 4·5반 돌모루.
- 황룡2리 : 1반 중리, 2·3반 소땡이, 4반 속벌, 5·6·7반 사거리.



느르실(2008)



유리온실(2008)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강일원(73)	청라면 내현리	680	이병완(64)	청라면 장산리	104
이승구(75)	청라면 내현리	177	김일현(58)	청라면 장산리	217
신대균(73)	청라면 라원리	253	구장서(67)	청라면 장산리	745
이명형(59)	청라면 소양리	64	김기영(47)	청라면 장산리	454
조갑석(68)	청라면 소양리	213	김영목(64)	청라면 장산리	607-8
이낙현(63)	청라면 옥계리	64-1	서병도(67)	청라면 향천리	395
이대성(62)	청라면 옥계리	256	조성모(55)	청라면 향천리	100
이선중(53)	청라면 옥계리	504	이항규(76)	청라면 장현리	125
이세구(67)	청라면 옥계리		김만호(64)	청라면 황룡리	688
이광직(70)	청라면 옥계리	740-1	김주원(70)	청라면 황룡리	1242
이병구(70)	청라면 의평리	153	원춘재(59)	청라면 황룡리	40
이석성(73)	청라면 의평리	42			